



교과서 + 수능 평가원 교육청 3大 대표기출 문법 개념 & 문제 총정리

단권화

국어영역
문법단권화

정답과 해설



I 국어와 얹

01 음운의 개념과 체계

본문 008~009쪽

개념 단권화

- 1 ④ 2 ③ 3 파열음 4 ○ 5 × 6 ③
7 첫째, 셋째의 '눈'

1 ④를 제외한 나머지 단어는 'ㄱ'과 'ㄷ'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초성만 달라 최소 대립쌍을 이루고 있지만, '달'은 초성 'ㄷ'과 중성 'ㄱ' 모두 달라 최소 대립쌍을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

2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약간 틈을 벌려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소리는 파찰음이다. 'ㅈ', 'ㅉ', 'ㅊ'이 파찰음에 해당하므로 이것이 첫소리에 포함된 '잘'이 정답이다.

3 파열음은 혀에서 나오는 공기를 일단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로, 파열음에는 'ㅂ', 'ㅃ', 'ㅅ', 'ㅆ', 'ㄷ', 'ㄸ', 'ㄹ', 'ㄴ', 'ㄷ', 'ㄹ'이 있다.

4 모음은 공기가 입안에서 장애를 받지 않고 만들어지는 소리이다. 장애를 받고 만들어지는 소리는 자음이다.

5 이중 모음은 단모음과 반모음이 어울려서 만들어진 모음으로,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인다.

6 '뱀'은 소리의 길이에 따라 의미가 분화되지 않는다. ①은 '言'과 '斗', ②는 '雪'과 '眼', ④는 '夜'와 '栗', ⑤는 '成人'과 '聖人'으로 분화된다.

7 '눈'은 '雪'의 의미일 때는 길게, '眼'의 의미일 때는 짧게 발음해야 한다.

교과서 문제로 개념완성

본문 010쪽

- 01 ⑤ 02 ④ 03 의미를 분화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04 ③ 05 ④

01 'ㄴ'나 'ㄹ' 모두 평순 모음임을 알 수 있다. 두 모음은 모두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고 발음해야 한다.

오답 피하기 ① 'ㄴ'은 고모음, 'ㄹ'은 저모음이다. ② 'ㄴ'은 전설 모음, 'ㄹ'은 후설 모음이다. ③ 'ㄴ'은 중모음이면서 원순 모음이다. ④ 'ㄴ'은 단모음 체계표에서 확인할 수 없다.

02 '두 개의 단모음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는 '엄마', '가위', '병아리'이다. 또한 모두 평순 모음만 제시되어야 하므로 이 조건을 충족하는 단어는 '엄마', '병아리'뿐이다. 그리고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이 모두 포

함되어 있어야 하므로 정답은 '병아리'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엄마'에는 후설 모음만 포함되어 있다. ② '가위'에는 원순 모음이 포함되어 있다. ③ '이어도'에는 단모음이 세 개 포함되어 있다. ⑤ '아버지'에는 단모음이 세 개 포함되어 있다.

03 소리의 길이는 단어의 뜻을, 억양은 주로 문장 끝에 쓰임으로써 문장의 뜻을 구별하게 해 준다. 즉, 의미를 분화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음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04 '성인'은 길게 발음할 경우 '성인(聖人)'의 의미를 지닌다. 주어진 문장은 문맥상 '성인(成人)'의 의미를 지니므로 길게 발음해서는 안 된다.

오답 피하기 ①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쓰는 음성 기호'를 나타내는 '발'은 길게 발음해야 한다. ② '밤나무의 열매'를 나타내는 '밤'은 길게 발음해야 한다. ④ '때리거나 부수는 따위의 육체를 사용한 힘'을 나타내는 '무력'은 길게 발음해야 한다. ⑤ '음식을 적게 먹음'을 나타내는 '소식'은 길게 발음해야 한다.

05 유음에는 거센소리나 된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유음에 거센소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오답 피하기 ① 목청 사이에서는 마찰음 'ㅎ'만 만들어짐을 알 수 있다. ② 파찰음에 해당하는 자음은 3개, 파열음에 해당하는 자음은 9개이다. ③ 비음은 두 입술, 윗잇몸-혀끝, 여린입천장-혀 뒤에서만 만들어진 다. 셴입천장-혀바닥에서는 파찰음만 만들어진 다. ⑤ 비음과 유음이 모두 만들어지는 위치는 윗잇몸-혀끝(ㄴ, ㄹ)이다.

3대 대표기출 우수문항

본문 011쪽

- 01 ② 02 ⑤ 03 ①

01 (ㄱ)은 초성(ㅂ), 중성(ㅈ), 종성(ㄷ)이 바뀌는 것에 따라 의미가 변별되는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즉, '발'에서 초성 'ㅂ'이 'ㄷ', 'ㅈ' 등으로 바뀌에 따라 '달', '잘'과 같이 의미가 다른 단어가 만들어짐을 나타내고 있다. (ㄴ)은 소리의 길이에 따라 의미가 변별되는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즉, '눈'은 길게 발음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雪)'을 의미하며, 짧게 발음하면 '신체의 일부인 눈(眼)'을 의미한다. 이로 보아 (ㄱ)과 (ㄴ)을 고려할 때,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줌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ㄱ)과 달리 (ㄴ)과 같은 소리의 길이는 문자 표기로 나타나지 않는다. ③ (ㄱ)과 (ㄴ)은 음운이 바뀌거나 장단음으로 발음되는 경우의 의미 차이를 보여 준다. ④ 자음은 초성과 종성, 모음은 중성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어떤 위치든 나타날 수 없다. ⑤ (ㄱ)이나 (ㄴ)은 음운의 변화에 따른 의미 변화를 보여 주는 것으로 감정의 차이를 표현한 것은 아니다.

02 '쫓아'는 '남의 말이나 뜻을 따라'라는 의미이고, '쫓아'는 '어떤 대상을 잡거나 만나기 위하여 뒤를 급히 따라'라는 의미로, '쫓아'와 '쫓'

야'는 의미 자체가 다른 단어이다. 그러므로 예사소리보다 된소리가 더 강하고 단단한 느낌을 주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03 '식물'의 경우 'ㄱ'이 [이]으로 바뀌어 발음되고, '입는'의 경우 'ㅂ'이 [ㅁ]으로 발음된다. 또한 '뜯는'의 경우 'ㄷ'이 'ㄴ'으로 발음된다. 연구개음 'ㄱ'이 'ㅇ'으로, 양순음 'ㅂ'이 'ㅁ'으로, 치조음 'ㄷ'이 'ㄴ'으로 바뀐 것으로, 조음 위치는 변함이 없고 조음 방법만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02 음운의 변동

본문 012~013쪽

개념 단권화

1 ④ 2 ①, ② 3 ① 4 ⑤ 5 ③ 6 ②

1 ①은 교체, ②는 탈락, ③은 첨가, ⑤는 축약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이다. ④는 연음 법칙으로 음운 변동 현상과는 무관하다.

2 '붓는'의 종성 'ㅅ'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관련이 있고, '뭉'을 [ㅁ]으로 발음하는 것은 비음화와 관련이 있다.

3 '실눈'의 'ㄴ'은 앞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으로 'ㄹ'로 바뀌었다. '한라'와 '신라', '난로'의 'ㄴ'은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으로 'ㄹ'로 바뀌었다.

4 '답그ㅡㅏㅡ아'는 'ㅡ'가 다른모음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에 해당한다.

5 '법학'은 [버팩]으로 발음되며, 'ㅂ'과 'ㅎ'이 축약되어 'ㅍ'으로 발음된 것이다. 음운 첨가 현상과는 관련이 없다.

6 '뜨이어'가 [뜨예로] 발음되는 것은 '이어'가 '여'로 축약된 경우에 해당한다. 탈락 현상과는 관련이 없다.

교과서 문제로 개념완성

본문 014쪽

01 ① 02 ③ 03 ③ 04 ① 05 ④

01 '받일'이 [받닐]이 되는 것은 'ㄴ'이 첨가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또한 [받닐]이 [반닐]으로 되는 것은 'ㄷ'이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으로 'ㄴ'으로 바뀌는 현상인 '비음화' 현상과 관련이 있다.

02 '넓음'에서 'ㅂ'이 뒤에 오는 모음에 연결되어 발음되었다. 연음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이는 음운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많다'에서 'ㅎ'과 'ㄷ'이 'ㄸ'으로 되는 축약 현상이 일어났다. ② '좋은'에서 'ㅎ'이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④ '앞문'에서 'ㅍ'이 'ㅁ'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⑤ '숨이불'에서 'ㄴ'이 새롭게 생기는 첨가 현상이 일어났다.

03 '나뭇잎'은 사이시옷 뒤에 '이' 소리가 결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나뭇잎나뭇잎'으로 발음하는 것이 옳다.

오답 피하기 ①, ②, ⑤ '셋길', '넷가', '빨랫돌'은 'ㄱ, ㄷ'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오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뗏마루'는 사이시옷 뒤에 'ㄹ'이 결합된 경우에 해당한다.

04 '콩밭을'에서 '밭'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을'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한다. 그러므로 [콩바툼]이 옳은 발음이 된다.

오답 피하기 ②는 [비치], ③은 [솔뚜껍], ④는 [무르플], ⑤는 [부어케서]로 발음하는 것이 옳다.

05 '따르ㅡㅏㅡ아'→[따라]는 'ㅡ'가 탈락되는 음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과 ㉡에서는 'ㄹ'이 탈락하는 음운 현상이 일어난다. ② ㉠에서는 자음 축약, ㉠과 ㉡에서는 'ㄹ' 탈락이 일어나므로 모두 자음과 관련된 음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③ ㉠에서는 자음 축약, ㉡에서는 모음 축약이 일어난다. ⑤ ㉠에서는 체언과 체언의 결합에서 'ㄹ'이 탈락하는 음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3대 대표기출 우수문항

본문 015쪽

01 ③ 02 ④ 03 ④ 04 ⑤

01 ㉠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은 '된소리되기', ㉢은 '자음 축약(거센소리되기)'의 용례에 해당한다. ③에서 '따뜻하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따뜻)과 자음 축약(따뜨타대)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 말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에서는 음운 변동의 과정에서 음절의 종성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에서는 음절의 종성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이다. ② ㉠은 음절의 종성이 7개의 대표음 가운데 하나로 발음되는 현상이고, ㉢은 두 개의 자음이 합하여 거센소리로 바뀌는 현상이다. ④ ㉡은 뒤의 자음이 앞의 자음의 영향을 받아 동화된 것이지만 ㉢은 두 음운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⑤ ㉡은 음운의 첨가가 아니라 안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가 결합하여 뒤의 음운이 바뀌는 교체에 해당한다.

02 '꽃눈'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꼇눈]으로 발음되고, 다시 비음화 현상에 따라 [꼇눈]으로 발음된다. '놓는' 역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논]으로 발음되고, 비음화 현상에 따라 [논]으로 발음된다.

오답 피하기 ① '끝까지끝까지'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만 적용된다. ② '부엌뒤부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가 적용된다. ③ '눈악눈눈'은 'ㄴ' 첨가 현상이 적용된다. ⑤ '뉘뉘뉘뉘'은 음절의 끝소리규칙과 된소리되기가 적용된다.

03 '급행열차'에서 '급행'의 'ㅂ'과 'ㅎ'이 하나의 음운 'ㅍ'으로 '축약(거센소리되기)'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열'이 [넌]로 발음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음운 첨가(ㄴ 첨가)' 현상이 나타난다.

오답 피하기 ① '가랑잎가랑잎'에서 'ㄴ'이 '첨가(ㄴ 첨가)'되는 현상

이 나타난다. 또한 ‘ㅍ’이 [비]으로 발음되는 ‘교체(음절의 끝소리 규칙 현상)’이 나타난다. ② ‘값지대갑쩌대’에서 ‘값’이 [갑]으로 발음되어 ‘탈락(자음군 단순화)’이 나타난다. 또한 ‘지’가 [찌]로 발음되어 ‘교체(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③ ‘술하대수타대’에서 ‘술’의 ‘ㅌ’이 [디]으로 발음되는 ‘교체(음절의 끝소리 규칙)’가 나타난다. 또한 ‘ㄷ’과 ‘ㅎ’이 하나의 음운 ‘ㅌ’으로 ‘축약(거센소리되기)’이 나타난다. ⑤ ‘서른여덟[서른녀덧]’에서 ‘ㄴ’이 ‘첨가(ㄴ 첨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덧’이 [덧]로 발음되어 ‘탈락(자음군 단순화)’이 나타난다.

04 ‘값’이 [갑]으로 발음되는 과정을 보면, 우선 겹받침 ‘ㅌ’ 중 ‘ㄷ’이 탈락되어 ㉠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갑]은 ‘ㅌ’이 아니라 [ㅍ]으로 발음됨을 통해 ‘ㅌ’이 ‘ㅍ’으로 교체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때의 교체는 ‘받침 발음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자음의 교체가 아니다. ‘ㅌ’은 받침소리로 발음되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값고, 값지’는 [갑:꼬, 갑:찌]로 발음되어 ‘ㅌ’이 교체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값’이 [갑]으로 발음되는 과정에서 ‘ㅌ’이 ‘ㅍ’으로 교체되는 것은 뒤이어 소리 나는 ‘ㄴ’의 영향에 따른 비음화의 결과이며, 이는 ‘받침 발음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교체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에는 ㉠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읽다’가 [익]으로 발음되는 것은 겹받침 ‘ㄹ’ 중 ‘ㄹ’이 탈락하는 현상이다. ② ‘읽는’이 [읍]으로 발음되는 것은 겹받침 ‘ㅌ’ 중 ‘ㄹ’이 탈락하는 현상이다. ③ ‘닭지’가 [닥찌]로 발음되는 것은 쌍자음 ‘ㄱ’이 대표음 ‘ㄱ’으로 교체되어 발음되는 현상이다. ④ ‘읽기’가 [읍]으로 발음되는 것은 겹받침 ‘ㅌ’ 중 ‘ㄹ’이 탈락된 뒤, ‘ㅍ’이 ‘ㅂ’으로 교체되어 발음되는 현상이다.

03 단어의 형성과 의미

본문 016~017쪽

개념 단권화

1 ④ 2 ⑤ 3 ⑤ 4 ④ 5 ①, ④ 6 ④

1 ‘값다’의 경우 ‘값-’과 ‘-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말로, ‘값-’이나 ‘-다’는 모두 홀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자립 형태소라 보기 어렵다. 또한 ‘값-’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실질 형태소라 할 수 있지만, ‘-다’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형식 형태소에 해당한다.

2 ‘지우개’는 ‘지우-’와 접미사 ‘-개’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뽕-’, ‘시-’, ‘헛-’, ‘홀-’은 모두 접두사이다.

3 ‘보슬비’는 어근 ‘보슬’과 어근 ‘비’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단어이다. ‘-쟁이’, ‘울-’, ‘시-’, ‘-이’는 모두 파생 접사이다.

4 ‘뛰놀다’는 연결 어미 없이 두 용언을 결합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에서 벗어난 것으로, ‘뛰놀다’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5 ‘산나물’은 ‘산의 나물’이라는 의미로 종속 합성어에 해당한다. 그리고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에 따라 만들어진 단어이므로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6 ‘간혹-간간이’는 의미가 비슷한 관계로 유의 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나머지는 모두 반의 관계를 이루는 단어들이다.



교과서 문제로 개념완성

본문 018쪽

01 ① 02 ① 03 빈집, 알아보기 04 ④ 05 ③

01 ‘만이’에서 ‘만-’은 ‘형제자매 중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고, ‘-이’는 사람·동물·사물을 만드는 접미사이다. 따라서 ‘만이’는 ‘만’과 ‘이’ 모두 접사로, 접사와 접사의 구성으로 만들어진 파생어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② ‘군’은 ‘쓸데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지만 ‘살’은 어근이다. ③ ‘헛-’은 ‘보람 없이’, ‘잘못’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지만 ‘먹다’는 어근이다. ④ ‘메-’는 ‘찰기가 없이 매진’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지만 ‘마르다’는 어근이다. ⑤ ‘-다랑-’은 ‘그 정도가 꽤 뚜렷함’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지만, ‘끓다’는 어근이다.

02 ‘어울림’은 ‘어우르다’에 접사 ‘-이-’가 결합되어 ‘어울리다’로 파생된 후, 다시 접사 ‘-(으)ㄴ’이 결합되어 ‘어울림’으로 파생되었다. 그러므로 ‘줄임’과 유사한 단어 형성 과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 ‘끝맺음’은 ‘끝+맺-+-(으)ㄴ’, ③ ‘눈웃음’은 ‘눈+웃-+-(으)’, ④ ‘귀여움’은 ‘귀엽-+-(으)ㄴ’, ⑤ ‘헛수고’는 ‘헛-+수고’로 분석된다.

03 통사적 합성어는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과 일치하는 합성어를 말한다. ‘빈집’은 관형어가 체언을 수식하는 형태이고, ‘알아보다’는 용언과 용언의 결합에 연결 어미가 들어간 형태로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과 일치하는 합성어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늦잠’은 용언과 체언이 결합될 때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생략된 경우이고, ‘여닫다’는 용언과 용언이 결합될 때 매개체인 연결 어미가 생략된 경우로서,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에서 벗어난 합성어에 해당한다.

04 ‘덮밥’은 ‘용언 어간+명사’의 구성이면서 앞의 말이 뒤의 말에 종속되는 형태를 띠므로 종속 합성어에 해당한다. ‘논밭’은 ‘명사+명사’의 구성이면서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대등한 관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대등 합성어에 해당한다. ‘갈등’은 ‘갈+등’과 같이 구성 요소 각각이 원래 의미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융합 합성어에 해당한다.

05 ‘뜨다’는 ‘【...을】’과 같이 목적어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사실(두 자리 서술어)을 사전에 표기해 두었지만, ‘뜨다’는 그렇지 않음(한 자리 서술어)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뜨다’는 동사, ‘뜨다’는 형용사로서, 품사가 서로 다를 수 있다. ② ‘뜨다’와 ‘뜨다’는 서로 의미적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표제어를 달리하여 사전에 등재한 것이다. 즉, 동음이의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뜨다’와 ‘뜨다’는 ‘떠, 뜨니’와 같이 동일한 형태

로 활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뜨다’와 ‘뜨다’은 활용할 때 ‘뜨+—어’가 ‘떠’가 되는 것으로 보아 ‘—’ 탈락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대 대표기출 우수문항

본문 019쪽

01 ② 02 ③ 03 ③

01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단어이고,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단어이다. ‘물고기’는 ‘물(어근) + 고기(어근)’로 구성된 합성어이고, ‘책가방’은 ‘책(어근) + 가방(어근)’으로 구성된 합성어이다.

오답 피하기 ‘지우개’는 ‘지우(어근) + 개(접사)’로 구성된 파생어이며, ‘심술쟁이’는 ‘심술(어근) + —쟁이(접사)’로 구성된 파생어이다.

02 ‘읽어갈무리하다’는 용언 어간 ‘읽—’에 연결 어미 ‘—어—’, 용언 ‘갈무리하다’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두 개의 용언 어간끼리 직접 결합한 합성어라 보기 어렵다. 같은 구조의 합성어가 되려면 ‘읽갈무리하다’가 되어야 한다.

03 ‘우리 학교에서 사람들이 운동을 한다.’에 사용된 ‘에서’는 ‘에서 ①’에 해당하는 예에 해당한다. ‘에서 ③’에 해당하는 용례로는 ‘우리 학교에서 우승을 차지했다.’를 들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에’는 격 조사와 접속 조사 모두 사용될 수 있지만, ‘에서’는 접속 조사로 사용될 수 없다. ② ‘땀’, ‘국’, ‘떡’이라는 사물을 ‘에’라는 조사를 사용하여 대등하게 이어 주고 있다. ④ “동생은 지금 집에 없다.”를 “동생은 지금 집에서 없다.”로 바꾸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⑤ “형은 방금 집에 왔다.”를 “형은 방금 집에서 왔다.”로 고치면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

04 품사의 분류

본문 020~021쪽

개념 단권화					
1 ③	2 ③	3 ⑤	4 ⑤	5 ⑤	6 ①
7 ④	8 독립언				

1 ‘일본 개’에서 ‘개’는 ‘犬’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보통 명사이면서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자립 명사이다.

2 대상의 이름이나 신분을 모를 때 묻는 인칭 대명사는 미지칭을 의미한다. 미지칭에는 ‘누구’가 있다.

3 ‘돌아 가다’는 ‘돌아(서) 가다’라는 의미로 ‘돌다’와 ‘가다’는 모두 본용언에 해당한다.

4 ‘벗+어’의 경우 ‘벗어’와 같이 어간 ‘벗—’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벗다’는 규칙 용언에 해당한다.

5 ‘다행히’는 뒤에 오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므로 문장 부사라고 한다.

나머지는 성분 부사에 해당한다.

6 ‘이 사람’의 ‘이’는 지시 관형사로,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기능을 한다.

7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하여 주는 조사는 보조사이다. 보조사에는 ‘는, 만, 도’ 등이 있다.

8 다른 성분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성을 띠는 말은 ‘독립언’이다. 독립언에 해당하는 단어로 ‘감탄사’가 있다.

교과서 문제로 개념완성

본문 022쪽

01 ⑤ 02 ④ 03 ① 04 ⑤ 05 ①

01 ‘싶다’는 ‘읽다’의 행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욕구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뜻을 보충하고 있다. 그러므로 ‘싶다’는 본용언 ‘읽다’와 연결되어 본용언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보조 용언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④ ‘놀다’, ‘가다’, ‘먹다’, ‘오다’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용언에 해당한다.

02 ㄱ에서 ‘와’의 앞말은 ‘아버지’로 단어의 끝 부분에 받침이 없고, ㄴ에서 ‘과’의 앞말은 ‘선생님’으로 단어의 끝 부분에 받침이 있다. 음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와/과’가 달리 선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ㄱ에서 ‘께서’는 주격 조사, ‘으로’는 부사격 조사이다. ② ‘가’는 주격 조사로, ‘과외 선생님’과 ‘누나’ 모두 주어의 기능을 하게 한다. ③ ‘께서’는 ‘가’의 높임 표현에 해당한다. ⑤ ‘에서’와 ‘도’는 모두 조사로, 조사끼리의 결합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03 ‘잡다’는 ‘잡아, 잡으니, 잡았다’와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ㅂ’이 ‘ㄱ/ㄷ’로 바뀌는 현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ㅂ’ 불규칙 용언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② 고와(굽+—아), ③ 구워(굽+—어), ④ 추워(춥+—어), ⑤ 아름다워(아름답+—어)로 ‘ㅂ’이 ‘ㄱ/ㄷ’로 바뀔 수 있다.

04 ‘부부’는 단어 자체로 복수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기에 사용된 ‘우리’는 개인의 소유나 소속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즉, ‘우리’는 말하는 이가 자신을 포함한 자기 무리를 포함한 것을 일컫는 말이다.

오답 피하기 ①의 ‘동생’, ②의 ‘아버지’, ③의 ‘학교’, ④의 ‘반’은 소유나 소속을 나타내는 것으로, 담화 맥락상 단수가 쓰여야 할 상황이라 할 수 있다.

05 ‘설마’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장에 놓이는 위치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치에도 놓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즉, ‘네가 설마 범인이니?’와 같이 쓰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 ‘바로’는 체언 ‘옆’을 수식하며 뜻을 제한하고 있다. ③ ‘겨우’는 수량을 나타내는 ‘십만 원’이라는 단어 앞에 오고 있다. ④ ‘설마’는 부정적인 추측을 나타내고 있다. ⑤ ‘못’은 ‘하다’의 의미를 부정하고 있다.



3대 대표기출 우수문항

본문 023쪽

01 ③ 02 ④ 03 ③ 04 ④

01 품사분류 기준 중 '형태'는 형태의 변화 여부를 말하므로 '깊다'와 '모르다'는 가변어, 나머지는 불변어이다. '기능'은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이므로 '호수', '강', '누구', '깊이'는 주어가 될 수 있는 체언이고, '깊다'와 '모르다'는 주로 서술어 역할을 하는 용언이며, '가, 의, 는, 도'는 조사이므로 관계언이다. '의미'는 개별 단어가 갖는 의미가 아니라 품사 전체가 갖는 의미로서 명사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형용사는 '사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과 같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깊다'는 형용사, '모르다'는 동사, '호수, 강, 깊이'는 명사, '누구'는 대명사, '가, 의, 는, 도'는 조사로 분류된다.

02 '노파심'은 '노파심이, 노파심에서, 노파심을, 노파심과' 등과 같이 조사와의 결합에서 제약을 받지 않는다. 반면 '불꽃', '얼떨떨', '미연', '불가분'은 특정한 조사와만 결합하는 특징을 지닌다.

03 <보기>에서 ㉠은 종결 어미, ㉡은 연결 어미, ㉢은 전성 어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는'의 '는'은 연결 어미가 아닌 용언을 관형사처럼 기능하게 하는 전성 어미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도착했겠구나'의 '구나'는 흔히 감탄의 뜻을 지니며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어말 어미로, 종결 어미에 해당한다. ② '오시지'의 '지'는 어떤 사실을 물을 때 쓰이는 어말 어미로, 종결 어미에 해당한다. ④ '먹었으나'의 '으나'는 앞 절의 내용과 뒤 절의 내용이 서로 다름을 나타내는 어말 어미로, 연결 어미에 해당한다. ⑤ '운동하기에'의 '기'는 용언의 어간 '운동하-'에 붙어 그 말이 명사구실을 하게 하는 어말 어미로, 전성 어미에 해당한다.

04 ①의 앞 '간다'와 ④의 앞 '되겠느냐'는 종결 어미가 붙은 단어이다. 그러므로 종결 어미 뒤에 보조사 '만'이 붙을 수 있다. 그리고 ③의 앞 '가서'는 조사가 붙은 단어, ②의 앞 '가지'는 체언으로 '만'은 이 붙을 수 있다.

05 문장의 짜임새와 의미

본문 024~025쪽

개념 단권화

1 ⑤ 2 〇 3 〇 4 내가 읽을 5 ① 6 '아름다운'의 대상이 '고향'인지 '하늘'인지 명확하지 않다. 7 아버지를 그린 초상화, 아버지가 그린 초상화, 아버지가 갖고 계신 초상화

1 '매우'는 부사어로 부속 성분에 해당한다.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라 보기는 어렵다.

2 '코스모스가'는 주어, '피었구나'는 서술어로,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 나타나는 홑문장에 해당한다.

3 주어와 서술어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겹문장이라고 한다.

4 '내가 읽을'은 '내가 읽다'에 관형사형 어미 '-(으)르'이 붙어 절

전체가 문장에서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5 '나는 밥을 먹는다.'와 '너는 죽을 먹는다.'의 의미 관계는 대등한 것으로, '나는 밥을 먹고, 너는 죽을 먹는다.'는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6 '고향'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하늘'이 아름다울 수도 있다.

7 수식의 범위가 정확하지 않아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이다.



교과서 문제로 개념완성

본문 026쪽

01 ② 02 ③ 03 ④ 04 ③ 05 ③

01 ㄴ의 '고등학생'은 '아니다'라는 서술어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성분으로 '보어'라고 한다. ㄴ에서 문장의 주체가 되는 말은 '그녀'이다.

오답 피하기 ① ㄱ의 '아기'는 '끌어다가 품었다'라는 동작의 대상이 되고 있다. ③ ㄷ의 '덜덜덜덜'은 '내려앉았다'를 수식하며 한정하고 있다. ④ ㄱ, ㄴ의 밑줄 친 부분은 필수 성분으로 생략할 수 없다. ⑤ ㄷ은 부속 성분으로 생략이 가능하다.

02 ㄹ의 '온갖 새', '저 두'는 두 관형어가 나열된 경우이다. 이때 '온갖'과 '저'는 뒤에 오는 '새'와 '두'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체언인 '물건들'과 '여자'를 꾸미는 역할을 한다.

오답 피하기 ① '더러운'과 '예쁜'은 형용사, '기는'은 동사로 모두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② '던', '는', '르'에 시간의 의미가 담겨 있다. ④ 용언 '더러운', '예쁜', '기는', 서술적 조사가 결합한 형태인 '중학생인', '과장인'은 관형어로 쓰인 경우에 해당한다. ⑤ 관형어는 꾸밈을 받는 말 앞에 위치하고 있다.

03 '이것은 아버지의 초상화이다.'는 중의적으로 해석되지만 '이것은 아버지를 그린 초상화이다.'는 이 그림은 아버지가 그린 초상화라는 의미만 드러난다.

04 (나)의 ㉠은 '첫차는 4시에 출발한다.'라는 홑문장이 '첫차'라는 명사를 꾸며 주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관형절을 안은문장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홑문장을 안은문장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 피하기 ① (가)는 '나는 ~ 탔다', '나는 일어났다', '첫차는 ~ 출발한다'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씩만 나타난다. ② '느리고'는 의도를 나타내는 어미이다. ④ (나)의 ㉠은 (가)의 ㉠에 비해 두 문장 간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난다. ⑤ (나)의 ㉡은 (가)의 ㉡에 비해 반복적인 요소를 생략하여 내용을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5 '볼에 흐르는 눈물'에서 서술어 '흐르다'의 주어는 '눈물'이다. 그러므로 생략된 주어는 '눈물'이라 할 수 있다. '그녀'는 문장 전체의 주어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ㄱ~ㄷ의 밑줄 친 부분은 모두 안긴문장에 해당한다. ② ㄱ은 관형절, ㄴ은 명사절, ㄷ은 부사절에 해당한다. ④ ㄴ에서 '그가 착한', '그가 착한 사람임을 아는'은 모두 안긴문장에 해당한다.



01 ③ 02 ② 03 ② 04 ⑤

01 문장 안에 관형어나 부사어가 아무리 많이 들어 있어도 주어와 서술어가 각각 하나씩 밖에 없으면 홑문장이다. '우리는 어제 학교로 돌아왔다.'는 주어('우리는')와 서술어('돌아왔다')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② 부사절('소리도 없이')을 안은문장이다. ④ 관형절('우리가 돌아온')을 안은문장이다. ⑤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02 '문제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문장은 주어 '문제'와 과 서술어 '많다'가 호응하지 않아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이 된 것으로,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을 보충함으로써 문장을 정확하게 고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요청하다'는 부사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므로 부사어 '정부에'를 보충한 것이다. ③ '소개하다'는 부사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므로 부사어 '누나에게'를 보충한 것이다. ④ '잡다'는 목적어와 부사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므로, 목적어 '그 일'을 보충한 것이다. ⑤ '어둡다'는 부사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므로 부사어 '동네 지리에'를 보충한 것이다.

03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와 같은 문장 접속 부사는 문장을 이어 주는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 '이상하게'는 '오늘은 운이 좋다.'라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므로 문장을 이어 주는 부사어라기보다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정말'은 용언 '예쁘다'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③ '배우'는 '높이'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④ '아주'는 관형어인 '새'를 수식하므로 관형어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⑤ '다행히'는 '나는 학교에 늦지 않았다.'라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04 ㉠과 ㉡은 모두 겹문장으로, '내가 노래 부르기', '이 지역 토양이 벼농사에 적합함'이라는 명사절이 각각 '친구들은 원한다.'와 '우리는 몰랐다.'에 안겨 있다. ㉠의 안긴문장 '내가 노래 부르기' 속에는 '노래'라는 목적어가 있지만, ㉡의 안긴문장 '이 지역 토양이 벼농사에 적합함' 속에는 목적어를 확인하기 어렵다.

오답 피하기 ① 부사어는 ㉡에만 나타날 뿐 ㉠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과 ㉡은 모두 명사절로 안겨 있는 문장이다. ③ ㉠과 ㉡ 모두에서 서술절이나 관형절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의 문장에는 '이'가 '지역'을 수식하는 관형어, '이 지역'이라는 구가 '토양'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고 있으나, ㉠의 문장에는 관형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06 문법 요소의 탐구

본문 028~029쪽

개념 단권화

1 감탄 2 미래 시제 3 현재 진행 4 껴서, 말씀, -시-
5 아버지 6 ⑤ 7 상태

1 '어라/아라'는 명령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지만, 문맥상 감탄문에 쓰이고 있다.

2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선 시제는 미래 시제이다.

3 '먹어 간다'는 현재의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4 조사 '께서', 특수한 어휘 '말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5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데리다' 대신 '모시다'라는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6 '소리를 낮추다'에서 '낮추다'는 주동사 어간 '낮-'에 파생 접사 '-추-'가 붙어 만들어진 사동사이다.

7 비가 오지 않는다는 상태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상태 부정에 해당한다.



교과서 문제로 개념완성

본문 030~031쪽

01 ④ 02 ⑤ 03 ⑤ 04 ② 05 ⑤ 06 ⑤ 07 ④
08 ②

01 a는 청자가 없는 상황에서 말하는 명령문으로 ㄴ에 해당된다. b는 조심하라는 경계의 의미로 ㄷ에 해당된다. c는 화자와 청자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청자의 행동을 직접 요구하는 것으로 ㄱ에 해당된다.

02 '심고 있었다'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며, 진행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과거 진행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가고 있다'는 현재 진행, ② '먹고 있겠다'는 미래 진행, ③ '갓었다'는 과거 완료, ④ '끝냈다'는 현재 완료에 해당한다.

03 ㄱ의 '주셨습니다'에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ㄴ의 '계셨다'는 '계시- + -었- + -다'로 분석되어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ㄱ의 '진지'는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특수 어휘이다. ② ㄱ의 '주셨습니다'는 듣는 상대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아주 높임(하십시오체)을 사용한 것이다. ③ ㄴ의 '드리고'는 '주다'의 높임 표현으로, 높임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특수 어휘라 할 수 있다. ④ ㄱ과 ㄴ에서 주격 조사 '께서'는 각 문장의 주체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04 ㄱ은 주체인 '선생님'을 '께서'와 '-시-'로 높이고 있다. ㄴ은 주체인 '어머니'를 '께서'로 높이고 있고, 듣는 이를 '-버니다'를 통해 높이고 있다. ㄷ은 객체인 '할머니'를 '께'와 '드리다'로 높이고 있다.

05 '울리게 하다'는 '-리-'와 '-게 하다'가 사용된 이중 사동 표현이다. 그러나 '울게 시켰다'로 바꾸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울렸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① 사동문의 부사어는 주동문의 주어가 되므로, ㄱ을 주동문으로 바꾸면 '아이가 우유를 먹었다.'가 된다. ② ㄴ에서 '시키다'도 '—게 하다'라는 사동의 의미를 더해 주고 있다. ③ '채웠다'는 '차—+—이—+—우—+—었—+—다'로 분석된다. 사동 접미사로 '—이—'와 '—우—'가 사용되고 있다. ④ '—게 하다'는 통사적인 사동 표현에 해당한다.

06 ㄴ의 '밝혀졌다'는 '밝히—+—어지—+—었—+—다'로 분석되며, '—어지—'만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이중 피동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오답 피하기 ①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 문장 성분이 바뀌는데,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가 된다. ② ㄴ을 통해 피동문에서는 능동문의 주어인 '그가' 생략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ㄷ을 통해 모든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④ ㄱ에서 '—히—'는 피동 접미사이고, ㄴ의 '—어지다'는 피동 보조 용언에 해당한다.

07 ㄱ과 ㄴ은 모두 부정의 대상이 무엇이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중의문에 해당한다. 즉 '나', '그', '만났다' 모두 부정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중의문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나는 그를 안 만났다.'는 부정 부사 '안'을 사용한 짧은 부정문이고, '나는 그를 만나지 않았다.'는 보조적 연결 어미 '—지 않다'를 사용한 긴 부정문으로서, 문장의 의미는 같다. ② '못' 부정문은 주체의 의지가 아닌, 능력상 불가능하거나 외부의 어떤 원인 때문에 그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③ '꽃이 안 예쁘다'에서 '안'은 의지의 부정이 아니라 상태를 부정한 것이다. ⑤ ㄱ은 주체의 의지 부정, ㄴ은 주체의 능력 부정에 해당한다.

08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은 판정 의문문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은 설명 의문문이다. 또한 의문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청자의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서술, 명령, 감탄 등의 효과를 내는 의문문은 수사 의문문이다. ㄱ은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판정 의문문이고, ㄴ과 ㄷ은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설명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수사 의문문이다.

오답 피하기 ㄷ은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3대 대표기출 우수문항
본문 032~033쪽

01 ③ **02** ② **03** ① **04** ① **05** ① **06** ⑤

01 ③에서 '잡수신다'를 통해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동시에 '연세'라는 어휘를 통해 높여야 할 대상인 할머니와 관련된 것을 높이고 있으므로 ㉠과 ㉡을 동시에 충족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그분'은 높여야 할 인물을 직접 높인 것이고, '성함'은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인 것이므로 ㉠만 사용되었다. ② '여쭙'은 객체인 '할머니'를 높인 것이고, '댁'은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인 것이므로 ㉠만 사용되었다. ④ '부모님'은 높여야 할 인물을 직접 높인 것이고, '모시고'는 객체인 '부모님'을 높인 것이므로 ㉠과 ㉡ 모두 사용되지 않았다. ⑤ '주무시다'는 주체인 '어머니'를 높인 것이지

만 높이는 대상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는 사용되지 않았다.

02 ㉠과 ㉡의 A에서는 서술어 '숨는다'와 '낮다'가 각각 주어('동생이', '실내 온도')만을 필요로 하지만, B에서는 주어('누나가')에 더해 각 목적어('동생', '실내 온도를')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A에서 B로 바뀌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에서 A의 주어 '동생이'는 C에서는 목적어 '동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에서 A의 주어 '동생이'는 C에서 부사어 '동생에게'로 바뀌었다. ③ ㉠과 ㉡의 A와 B 모두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씩 나타나는 홀문장이다. ④ ㉡에서 A의 서술어 '차다'는 타동사인 B를 통해 '차다'에 대응하는 사동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 A의 서술어 '먹다'는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B에서 '먹이다'라는 사동사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에서 A의 서술어 '낮다'는 형용사이고, ㉠에서 A의 서술어 '차다'는 동사이다. 또한 A의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에도 ㉡의 B와 C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동문을 만들 수 있다.

03 ㉡는 '언제, 어디'라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설명 의문문)이다. 또한 ㉡는 의문문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어나라.'라는 명령을 나타내는 의문문(수사 의문문)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는 듣는 이로 하여금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판정 의문문)에 해당한다. 또한 ㉡는 억울한 일을 겪은 상황에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한 의문문(수사 의문문)에 해당한다.

04 '제가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는 들어가겠다는 자신의 의도를 '—겠—'을 사용하여 완곡하게 전달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② 영화를 보러 가겠다는 말하는 이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③ 도착할 것이라는 미래의 일에 대한 추측이나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 ④ 시원해질 것이라는 미래의 일에 대한 추측이나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이겨 내겠다는 말하는 이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05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는 누군가가 아이가 밥을 먹도록 시킨 것이다. 이는 '아이가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사동문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② '당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람에게 부당하거나 원하지 않는 일을 겪거나 입다.'로 피동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꼬마가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했다.'는 피동의 의미를 갖는 단어에 의해 만들어진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③ '잡히다'의 '—히—'는 피동 접미사이다. ④, ⑤ '—되다'와 '—어지다'는 피동의 의미를 지닌 말이다.

06 ㉡의 '—기—'는 '도둑'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대상인 '경찰'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피동 접미사이다. 따라서 행위의 주체는 '경찰'이 아니라 '도둑'이다.

오답 피하기 ① ㉠에서는 행위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먹다'의 높임말인 '들다'에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에서는 행위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날리다'에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고 있다. ② ㉠의 '—ㄴ—'은 현재를, ㉡의 '—었—'은 과거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선어말 어미이다. ③ ㉡의 '—리—'는 행위 주체인 '아버지'가 다른 대상인 '연'이 날도록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사동 접미사이다. ④ ㉡의 '—겠—'은 '가다'라는 행위에 대한 행위 주체 '나'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선어말 어미이다.

II 국어와 삶

01 정확한 표현

본문 036~037쪽

개념 단권화

- 1 (1)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네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2) 비록 공부를 못 했지만,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
- 2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3 (1) 너 선생님께서 빨리 오
라서. (2) 우리가 이미 그것을 해 놓았습니다. 4 ④
- 5 예쁜, 동생의 친구를 만났다. / 동생의 예쁜 친구를 만났다.

1 (1)은 주술 호응을 고려하여 '~말은 ~한다'는 것이다' 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고, (2)는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고려하여 '비록 ~할지라도/했지만' 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제시된 문장은 필수 문장 성분인 목적어가 생략되어 무엇을 처음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문장이 되었다.

3 (1)은 주체인 선생님을 높여야 하므로, 높임 표현 '께서'와 '—시—'를 사용하여 수정하고, (2)는 '이미'가 과거 시제와 호응하는 부사어이므로 '해 놓았습니다'로 수정한다.

4 '않았다'가 부정하는 말이 '학생'인지, '다'인지, '오다'인지 명료하지 않아 중의성이 생긴 것이다.

5 문장의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 수식어의 위치를 바꾸거나 쉼표를 찍어 수식하는 말을 제한할 수 있다.

교과서 문제로 개념완성

본문 038~039쪽

- 01 ④ 02 ⑤ 03 ① 04 ④ 05 (1) 그녀는 곧 장마가 끝
날 것으로 예상했다. (2) 정치인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국민이다.
- 06 ④ 07 ④ 08 ② 09 ②

01 ④에서 '많다'의 주어는 '영양'이지 '맛'은 아니다. 따라서 '맛도 좋고 영양도 많다.'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다.

오답 피하기 ①은 지나친 이중 피동('열리지'가 옳은 표현), ②는 높임법의 잘못된 적용('있었습니다'가 옳은 표현), ③은 의미의 중의적 표현, ⑤는 불필요한 의미의 중복(별도—따로)에 해당한다.

02 ㉠의 '잘되도록'은 문맥상 정확한 표현에 해당한다. ㉠을 '잘될수록'으로 고치면 정확하게 쓰여 있는 표현을 오히려 틀리게 고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④는 잘못된 표현을 바르게 지적하여 고쳐 쓴 것에 해당한다.

03 '아직'은 어떤 일이나 상태 또는 어떻게 되기까지 시간이 더 지나야 함을 나타내거나, 어떤 일이나 상태가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 긍정 서술어와 부정 서술어 모두에 사용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 '별로'는 '이렇다 하게 따로, 또는 그다지 다르게, ③ '비단'은 부정하는 말 앞에서 '다만', '오직'의 뜻으로, ④ '그다지'는 '그러한 정도로는, 또는 그렇게까지는', ⑤ '도저히'는 '아무리 하여도'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04 '비록'은 '~할지라도(하더라도)'와 호응하는 부사어이다. '비록 그 가난할지라도(하더라도)'로 고쳐야 옳다.

05 (1)에서 '예상'은 '어떤 일을 직접 당하기 전에 미리 생각하여'든, 또는 그런 내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미리 예상했다'는 의미가 중복된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다. '미리'를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에서 '~에게 있어'라는 표현은 일본어 번역 표현으로 '정치인에게'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06 <보기>는 문장에서 필수 성분인 목적어를 누락한 예에 해당한다. 즉, 내가 어제 사람들이 '무엇을'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을 보았는지가 생략되어 있다. ④ 역시 수강생들이 오면 '무엇을' 건강에 따라 조정해 주는지가 생략되어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조사 '에'의 사용이 잘못되었다. ② '미치다'란 동사앞에 '에/에게'라는 부사어가 필요한데 생략되어 있다. ③ '피부 관리로 아름다움을 가졌다'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⑤ '떠나가 버렸다'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07 <보기>는 '먹이셨다'라는 사동 표현으로 생긴 중의성을 보여 주는 예이다. 즉,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직접 우유를 매일 먹이셨는지(직접 행동),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우유를 매일 먹이도록 시키셨는지(간접 행동) 확인하기 어려운 표현이라 할 수 있다.

08 ㉠에서 '기억'과 '상상'이 '확산시키다'와 각각 호응한다고 보기 어렵다. '기억을 되새겨 주고 상상을 확산시켜 준다.' 정도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에서 필수 성분인 목적어 '책들'이 생략되어 있다.

오답 피하기 ㉠에서 '읽음으로써'로 적는 것은 옳바르다. ㉡에서 주어 '내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과 서술어 '읽는 것이다'가 호응하고 있지 못하다.

09 '누나는 나보다 영화를 더 좋아한다.'는 누나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영화를 더 좋아하는 것인지, 내가 영화를 좋아하는 것보다 누나가 영화를 더 좋아하는 것인지 의미가 모호하다. '나보다'와 '영화를'의 어순을 바꾸어 '누나는 영화를 나보다 더 좋아한다.'로 고친다고 해도 이 중 의성은 해결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그녀의 귀여운 동생을 보았다.', ③ '거실에는 아버지께서 그런 그림이 걸려 있다.', ④ '영수는 명화와 밥을 먹었다.', ⑤ '바다에 떠 있는 배를 보아라.'는 모두 중의성이 해결된 문장들이다.



01 ④ 02 ② 03 ③ 04 ② 05 ③ 06 ③ 07 ①

01 ㉔은 '성실한'의 수식 대상이 '그'인지, '그의 동생'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중의성을 갖게 된 문장이다. '성실한 그의 동생'에서 '성실한'의 수식 대상은 '그'이고, '성실한, 그의 동생'에서 '성실한'의 수식 대상은 '동생'이다.

오답 피하기 ① '문제는~문제이다'에서 보듯, '문제'라는 표현이 중복되어 있다. ② '-시키다'라는 사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③ '(으)로써'는 도구나 수단을 나타낼 때, '(으)로서'는 지위나 자격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⑤ '회의를 갖다'는 'have a meeting'의 번역체 표현이라 할 수 있다.

02 <보기>에서는 주술 호응이 잘못된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명사+은/는'이 주어일 경우에는 '명사+이다.'라는 서술어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보기>에서 제시된 문장은 "확실한 사실은 그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점)이다."로 고쳐야 주술 호응이 자연스러워진다. 이와 같이 주술 호응이 잘못된 문장의 또 다른 예는 ②로서, "이 글의 특징은 길이가 짧지만 인상은 강하다는 것이다."로 고쳐야 주술 호응이 자연스럽다.

오답 피하기 ① 목적어인 '상품 구매'와 서술어인 '구입하다'의 호응 관계가 어색하다. 또한 '구입'과 '구매'는 비슷한 의미를 지닌 말로서, 겹말 오류에 해당한다. "회원들은 상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로 수정하면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자연스러워진다. ③ '여간하다'는 부정어와 호응을 이루는 말이므로 "이들의 성공 소식은 부모님께 여간한 기쁨이 아니었다."로 수정해야 호응 관계가 자연스러워진다. ④ 목적어인 '유해 물질', '연료 효율'과 서술어인 '높여 주다'의 호응 관계가 어색하다. '연료 효율을 높여 주다'는 성립하지만 '유해 물질을 높여 주다'는 잘못된 문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기계는 유해 물질을 없애 주고 연료 효율을 높여 주었다." 정도로 수정하면 호응 관계가 적절하다. ⑤ '형언하다'는 주로 부정어와 함께 쓰여 '형용하여 말하다'의 의미를 지니는 동사이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행복한 마음을 형언할 방법이 없었다."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03 (가)는 '반드시'를 '절대로'로 수정하였다. 이는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고려하여 수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는 '타인이'라는 주어를 추가하였다. 즉,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인 주어를 추가한 것이다.

오답 피하기 ㉔의 조사나 어미를 잘못 사용한 경우의 예에는 조사 '이/가'를 잘못 사용한 경우, '로써/로써'를 잘못 사용한 경우, '아니오'와 '아니요'를 잘못 사용한 경우, '-든'과 '-던'을 잘못 사용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04 ②는 군더더기 표현이 없는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이므로, 뜻이 중복되어 어색한 느낌을 주는 문장이라 하기 어렵다.

오답 피하기 ①은 '기간'과 '동안'이 ③은 '공기'와 '환기'가 ④는 '밖으로'와 '표출'이 ⑤는 '열심히'와 '열중하여'가 중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05 "언니가 지금 교복을 입고 있다."는 동작의 진행과 완료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이다. 즉, 교복을 입는 동작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와 현재 교복을 다 입은 후의 상태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문장을 "교복을 입는 중이다."로 고치면 동작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만을 나타내게 되어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교복을 입고 있다."라고 수정하여도 그 중의성은 해소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은 수식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이 발생한 표현이다. 이를 '장식물이 예쁜 경우'만으로 의미를 한정하기 위해서는 '예쁜, 모자의 장식물'과 같이 첨표를 사용할 수도 있고, '모자의 예쁜 장식물'처럼 단어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다. ②는 부정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이 발생한 표현이다. 이를 '손님들 중 일부만 온 경우'만으로 의미를 한정하기 위해서는 "손님들 중 일부가 오지 않았어."나 "손님들이 다는 오지 않았어."와 같이 수정하면 된다. ④는 비교의 대상에 따른 중의성이 발생한 표현이다. 이를 '나와 동생이 비교 대상인 경우'로 한정하기 위해서는 "형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나 "형은 나와 동생 중에서 동생을 더 좋아한다."와 같이 수정하면 된다. ⑤는 수식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이 발생한 표현이다. 이를 '나'가 웃으면서 인사하는 경우'로 한정하기 위해서는 "나는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웃으면서 인사했다."처럼 표현을 수정하거나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나는 웃으면서 인사했다."처럼 수정하면 된다.

06 '동물은 사람을 경계하기도 한다.'와 '동물은 사람에게 기대기도 한다.'가 결합하여 하나의 문장이 되었음을 고려하면, 서술어 '기대기도 한다'에 호응하는 부사어 '사람에게'가 추가되어야 정확한 문장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서술어를 '경향인 것이다'로 수정한다고 하여도 '사람들'과 호응되지 않는다. ② '공이나 야구를 하다'로 수정하면 '공을 하다'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목적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④ '고양이가' 뒤에 첨표를 찍어도 문장의 중의성은 해소되지 않는다. ⑤ '누구나'를 '누구도'로 수정해도 어색한 문장이 된다.

07 ②는 '만약'과 '~않아서'의 호응이 부적절하고, '없었다'도 '없을 것이다'로 고쳐야 한다. ③은 '바뀌게'하려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 되었다. ④는 농사를 망치게 된 원인이 저수지에 대한 관리 소홀과 무관심이므로 이를 분명히 밝혀 주어야 한다. ⑤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부적절하다.

02 담화의 특성

본문 042~043쪽

개념 단권화

- 1 × 2 ○ 3 약속 담화 4 ② 5 매체 담화
6 직접 발화 7 간접 발화 8 그래서

- 1 구어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는 발화이다. 담화는 발화가 모여 이루어진 것이다.
- 2 '사용역'은 화자와 청자 사이에 언어 전달 행위가 일어날 때 다양한 언어 변이가 일어나는 장면을 일컫는 말이다.
- 3 '맹세, 선서'는 발화에 담긴 내용을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나타내는 의도로 생산된 담화이다.
- 4 '강의, 뉴스, 보도'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로 생산된 정보 제공 담화라 할 수 있다.
- 5 인터넷 통신 언어는 매체 담화에 해당한다.
- 6 밥을 언제 주실 것인지를 직접 묻는 것이므로 문장 유형과 발화 의도가 일치하는 직접 발화이다.
- 7 시간이 금급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일찍 다니라는 훈계의 의도가 드러나 있으므로 문장 유형과 발화 의도가 불일치하는 간접 발화이다.
- 8 앞의 문장은 뒤의 문장의 원인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 조건 따위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인 '그래서'를 넣을 수 있다.



교과서 문제로 개념완성

본문 044~045쪽

- 01 ① 02 ④ 03 ⑤ 04 ④ 05 ② 06 청자(구매자)와
의 심리적 거리를 좁힌다. 또는 청자(구매자)에게 친밀감을 준다.
07 ① 08 ④

01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상황에 따른 적절한 언어 표현을 묻고 있다. 남이 자신에게 칭찬할 때, 오히려 자신의 부족한 점을 드러냄으로써 공손한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①에서 상대의 칭찬에 대해 자신의 장점보다는 부족함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② 상대의 권유를 간접적으로 거절하고 있다. ③ 상대방의 장점에 대해 칭찬하고 있다. ④ 자신의 의견보다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있다. ⑤ 상대의 말을 끊고 있다.

02 범인이 뒷문으로 도망갔다는 것을 (ㄱ)과 (ㄴ)의 형식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ㄱ)의 경우 간접 발화를 활용하여 '저 문이 열려 있는데요.'라고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나, (ㄴ)의 경우 직접 발화를 활용하여 '뒷문으로 도망갔네요.'라고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ㄱ)과 (ㄴ)을 통해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내

용은 도출하기 어렵다. ② (ㄱ)에 비언어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나, (ㄱ)과 (ㄴ) 모두 반언어적 표현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③ (ㄱ)에 지시 표현 '저'가 드러나 있으나 동일 대상이 지시 표현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⑤ (ㄱ)과 (ㄴ)에서 주인이 동일한 표현을 드러내었으나 형식은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 대답을 하고 있다.

03 '간접 발화 행위'는 종결 어미와 기능을 일치시키지 않는 발화 방식이다. ㉠은 '늦었으니 전화하지 말라.'는 명령적 기능을 의문형 종결 어미로 표현한 간접 발화 행위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은 물어보고자 하는 의도를 직접 드러내고 있으며, ㉡, ㉢은 특정 행동을 직접 요구하고 있으며, ㉣은 화자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모두 직접 발화 행위에 해당한다.

04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살기 좋은 고장을 건설합시다.'에서 '우리'를 '저희'로 고치면 어색하다. 이 문장의 '우리'는 청자를 포함하는 말이기 때문에 화자가 청자까지 함께 낮추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오답 피하기 ① '부장님, 저희의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② '저희는 여러분들과 의견이 다른 점이 많습니다.', ③ '시장님, 저희가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⑤ '선생님, 저희 모듬은 내일 답사를 떠나기로 했습니다.'와 같이 바꾸어도 어색하지 않다.

05 '살아 보이시는'에 사용된 높임 선어말 어미 '-시-'는 주체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목구비'를 높이고 있어 어색한 문장이다. 청자를 높이는 뜻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 보기 어렵다.

오답 피하기 ① 사장이 아니지만 '사장님'으로 호칭하고 있다. ③ 청자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며 구매 의욕을 자극하고 있다. ④ 격식체를 사용하며 딱딱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⑤ '복장 해제! 실시!'는 명령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06 높임 표현은 듣는 이가 말하는 이보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지니고 있을 때 사용한다. 하지만 반대로 높임 표현은 상대방과의 거리감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ㄱ)을 (ㄴ)으로 바꾼 까닭도 이런 점을 의식하였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07 '-답니다'는 '-다고 합니다'의 줄임말로, 일반적으로 인용 발화에 사용되는 종결 어미이다. 그러나 ㉠에서는 담화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인용 발화의 형식을 빌린 것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⑤는 모두 책, 신문, 방송과 같은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된 일을 전달하는 인용 발화에 해당한다.

08 ④의 '있겠지'는 ⑤의 '있을 거야'와 마찬가지로 추측의 의미나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사실의 전달과는 관련이 없다.



3대 대표기출 우수문항

본문 046~047쪽

- 01 ② 02 ⑤ 03 ③ 04 ④ 05 ① 06 ⑤

01 담화의 기능에는 정보 제공, 호소, 사교, 선언 등이 있다. 그러나 하나의 담화가 갖는 기능은 하나 이상일 수도 있다. <보기>는 사랑의 온도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텔레비전 뉴스인데, 어려운 이웃을 도울 것을 호소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제시된 뉴스에서는 공적인 말하기의 특징만 드러나 있다. ③ 일반적 내용을 제시한 후 상세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④ 비문법적인 표현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1:다(多)의 의사소통이라 할 수 있다.

02 ㉔의 '저희'는 1인칭 복수 '우리'의 낮춤말이 아니라,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들을 도로 가리키는 3인칭 대명사이다. 여기에서는 '우리 집 아이들', 즉 '선생님의 아이들'을 가리킨다.

오답 피하기 ① ㉔의 '이것'은 학생이 손에 들고 있는 책을 가리킨다. ② ㉔의 '그것'은 할아버지께서 생일마다 사 주신 책들을 가리킨다. ③ ㉔의 '당신'은 인칭이 아니라,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3인칭 대명사인 '자기'를 높여 이르는 말이다. 예를 들어, '철수는 자기가 가겠다고 했다.'에 쓰인 '자기'와 '선생님께서도 당신께서 가겠다고 했다.'에 쓰인 '당신'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㉔의 '당신'은 할아버지를 가리키며 3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④ ㉔의 '우리'는 선생님 혹은 선생님의 가족을 가리키기 때문에 청자(학생)를 포함하지 않는다.

03 같은 대상을 철수는 '이 과자'라고 표현하고 영희는 '그거?'라고 표현한 것은 '과자'가 영희보다 철수에게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오답 피하기 ② 발화 상황을 고려할 때 '참 잘하셨네요.'는 철수의 행위에 대해 영희가 자신의 불만 또는 언짢음을 반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④ '대신 이 과자라도 먹을까?'라는 철수의 발화 내용을 고려할 때 '먹을까?'라는 영희의 발화에는 주체인 '나'와 대상인 '과자'가 생략되어 있다. ⑤ 과자를 건네는 행위와 '배 안 고파?'라는 물음에 담긴 의도를 고려할 때 점심을 먹었다는 철수의 진술은 과자를 먹으라는 영희의 제안에 대한 거절의 의미를 담고 있다.

04 아주머니가 '아침은 먹었니?'라고 발화한 것은 실제로 아침 식사를 하였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아침 인사에 해당한다. 즉, 이러한 표현을 통해 아주머니는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학생은 발화의 성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 "전 아침 안 먹는데요."라고 답하고 있다. ② 아주머니와 학생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일한 심리적 경험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학생이 아주머니의 발화에 담긴 내용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하는 부분은 대화에 드러나 있지 않다. ⑤ 아주머니가 학생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 발화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05 '가는 길에 이 편지 좀 부쳐 주세요.'에서 '좀'은 '부탁이나 동의를 구할 때 간곡한 뜻을 더하는 말'로, 말을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라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 '늘'은 "계속하여 언제나"의 의미를 지닌 부사이다. ③ '영'은 "전혀 또는 도무지"의 의미를 지닌 부사이다. ④ '죽'은 "물 따위를 단숨에 들이마시는 모양"의 의미를 지닌 부사이다. ⑤ '더'는 "어떤

기준보다 정도가 심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의 의미를 지닌 부사이다.

06 '뮤지컬 함께 보러 가자.'라는 화자의 발화는 청유형 어미 '-자'를 사용한 청유문으로서, 요청의 의미를 담고 있는 직접 발화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반장의 발화는 평서형으로 표현되었으나, 떠드는 학생에게 조용히 하라는 지시의 뜻을 담고 있으므로 간접 발화에 해당한다. ② 엄마의 발화는 의문형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게임을 그만하라는 지시의 뜻을 담고 있으므로 간접 발화에 해당한다. ③ 시어머니의 발화는 의문형으로 표현되었으나, 우산을 들고 마중을 가는 게 어때냐는 요청의 뜻을 담고 있으므로 간접 발화에 해당한다. ④ 사장의 발화는 의문형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실수를 하지 말라는 주의의 뜻을 담고 있으므로 간접 발화에 해당한다.

03 표준 화법

본문 048~049쪽

개념 단권화

1 ④ 2 ⑤ 3 (1) 아가씨, (2) 아내 4 (1)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좀 어떠십니까? 5 -님, -시-

1 '표준어'는 '표준어 규정'에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표준 화법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2 '자친(慈親)'은 살아 계신 자신의 어머니를 지칭하는 말이다.

3 남편의 누이동생은 '아가씨'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아내를 지칭할 때에는 '아내'가 가장 일반적이다.

4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는 신년 인사이고,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는 문상 인사이다.

5 윗사람을 그보다 윗사람에게 지칭할 때, 지시 대상에 '-님'을 붙이고,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쓴다.



교과서 문제로 개념완성

본문 050쪽

01 ② 02 ① 03 ⑤ 04 ③ 05 ④ 06 ③

01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와 '뿔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문상 인사말이고, '얼마나 망국하십니까?'는 부모 상을 당한 경우에 사용하는 인사말이다.

02 친구의 어머니를 친구에게 지칭하는 말은 '자당'이다. '춘부장'은 친구의 아버지를 친구에게 지칭하는 말이다.

03 정년 퇴임의 인사로는 '축하합니다(경축합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벌써 정년이시라니 아쉽습니다.'와 같은 말을 사용할 수 있다.

04 '잡수시다'를 사용한 표현이 가장 정중한 높임 표현이고, '드시다', '식사하다'의 순으로 높임의 정도가 점차 낮아진다.

05 '미스터 O', '미스 O' 등은 외국식 표현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06 '오빠'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이거나 일가친척 가운데 항렬이 같은 순위 남자 형제를 여동생이 이르거나 부르는 말'로 부부 사이에 사용하는 지칭어로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사위가 장인어른을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것, ② 장인어른이 사위를 부를 때에 'O 서방'으로 부르는 것, ④ 아버지가 결혼하여 자식을 둔 딸을 부를 때 '어미'라고 하는 것 ⑤ 딸이 자신의 어머니를 지칭할 때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다.



3대 대표기출 우수문항

본문 051쪽

01 ② 02 ① 03 ②

01 ㉠과 ㉡의 청자는 고모로 동일하지만, 화자는 할머니와 엄마로 다를 수 있다. 이로 보아 ㉠은 고모부를, ㉡은 고모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 피하기 ㉠은 할머니(화자)가 고모(청자)에게 고모부를 가리키는 말이며, ㉡은 고모(화자)가 할머니(청자)에게 고모부를 가리키는 말이다. ㉢은 엄마(화자)가 고모(청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은 은미(화자)가 고모(청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은 고모(화자)가 은미(청자)에게 고모부를 가리키는 말이다.

02 일반적으로 상위자에게는 '죄송하다'를, 하위자에게는 '미안하다'를 쓰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리고 아랫사람이라도 별로 친하지 않거나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죄송하다'를 쓸 수 있다. 이로 볼 때, ㄱ의 상황에서 사장은 과장에게 '죄송하다'와 '미안하다'라는 말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 윗사람에게는 '죄송하다'를 쓰는 것이 더 적절하지만 같은 윗사람이라도 친밀감을 갖는 사람에게는 '미안하다'를 쓸 수 있다. ③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의 격식성에 의해 '미안하다'와 '죄송하다'를 바꿔 쓸 수 있다. ④ 상위자에게는 '죄송하다'를, 하위자에게는 '미안하다'를 쓰는 것이 더 적절하다. ⑤ '죄송하다'는 주로 상위자를 대상으로 한다.

03 ㉠은 고유어와 한자어의 의미가 비슷한 경우, 고유어보다는 한자어가 더 높은 말로 쓰이는 예이고, ㉡은 같은 한자어끼리도 높임의 정도에 차이를 보이는 예이며, ㉢은 고유어 가운데서도 높임의 정도가 다른 예이다. '이-치아'에서 한자어 '치아'는 고유어 '이'보다 높은 말로 쓰이고 있고, '사망-별세'에서 한자어 '사망'보다 한자어 '별세'가 더 높은 말로 쓰이고 있으며, '있다-계시다'에서 고유어 '있다'보다 고유어 '계시다'가 더 높은 말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1 한글 창제의 원리

본문 054~055쪽

개념 단권화

1 애민 정신 2 예의 3 × 4 ○ 5 ⑤ 6 거성, 상성 7 ④

- 1 글자를 몰라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훈민정음을 창조했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애민 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
- 2 예의에는 세종의 서문과 훈민정음의 음가 및 운용법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다.
- 3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는 ‘ㄴ’이다.
- 4 ‘ㄴ’에 가획을 하면 ‘ㄷ’이 되고, ‘ㄷ’에 가획을 하면 ‘ㅌ’이 된다.
- 5 ‘ㄹ’은 사람의 서 있는 모양을 본떠 만든 기본자에 해당한다.
- 6 방점이 한 점은 거성으로 높은 소리이고, 방점이 두 점은 상성으로 낮다가 높아지는 소리이다.
- 7 ‘ㅍ’은 입술소리 ‘ㅂ’ 아래에 ‘ㅇ’을 이어 쓴 것으로 연서(이어 쓰기)를 통해 만들어진 글자이다.



교과서 문제로 개념완성

본문 056~057쪽

01 ③ 02 ⑤ 03 ② 04 ③ 05 기본자와 동일한 위치에
서 기본자보다 소리가 세지는 말소리의 특성을 글자 모양에 반영한
것이다. 06 ② 07 ② 08 ② 09 ⑤ 10 ③

01 가획의 원리는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글자를 만들어 내는 원리이다. ‘ㄱ’을 만들기 위해 ‘ㄱ’에 획을 추가한 것은 가획의 원리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ㅈ’은 ‘ㅈ’과 ‘ㅈ자음’을 눌러야 만들어진다. ② ‘ㄴ’은 ‘ㄴ’과 ‘ㄴ’을 눌러야 만들어진다. ④ ‘ㄷ’은 ‘ㄱ’과 ‘ㅈ’을 눌러야 만들어진다. ⑤ ‘ㅈ’은 ‘ㄴ’과 ‘ㄴ’을 눌러야 만들어진다.

02 훈민정음 창제 당시 ‘중성부용초성(綜聲復用初聲)’이라 하여 중성은 초성을 다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실제 사용된 여덟 개의 중성은 ‘ㄱ, ㅇ, ㄷ, ㄴ, ㅂ, ㅁ, ㅅ, ㄹ’이다.

03 ‘ㄱ, ㄴ, ㅁ, ㅅ, ㅇ’은 훈민정음의 자음 기본자로, 상형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중 ‘ㄴ’은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따 만든 글자에 속한다. 그리하여 혓소리(설음)라고 한다.

04 ‘ㅇ’은 ‘ㅇ’에, ‘ㄹ’은 ‘ㄴ’에, ‘ㅌ’은 ‘ㅈ’에 각각 획을 더한 모양이지만 소리의 세기와는 관련이 없는 이체자에 속한다. 참고로 ‘ㅇ’, ‘ㅈ’은 초성 기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05 가획의 원리는 단순히 획만 더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세지는 특

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06 ‘ㅎ’은 ‘快’字와 같이 사잇소리를 적는 데 사용되었으며, ‘니르·고·저·흙·배’와 같이 된소리 부호의 기능을 하였다.

07 ‘.’는 ‘하늘’을 본뜬 글자이고, ‘ㅡ’는 ‘땅’을 본뜬 글자이다. 모음은 ‘.’, ‘ㅡ’, ‘ㅣ’의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 나머지 초출자와 재출자는 합성의 원리를 통해 만들어졌다.

08 ㄴ에서 ‘시, 시, 새, 새 / ㅁ, ㅁ, ㅁ, ㅁ’은 서로 다른 두 글자를 각각 나란히 써 글자를 만든 것에 해당하지만, ‘ㅁ, ㅁ’은 서로 다른 세 글자를 나란히 써 글자를 만든 것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ㄱ에서 입술소리 ‘ㄱ, ㅍ, ㅂ, ㅃ’ 아래에 ‘ㅇ’을 이어 썼음을 알 수 있다. ③ ‘ㄱ, ㄷ, ㅂ, ㅅ, ㅈ, ㅊ’을 두 번 나란히 써 글자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중성 ‘.’, ‘ㅡ’, ‘ㅣ’는 자음 아래에 ‘ㅣ, ㅌ, ㅊ, ㅆ’는 자음 오른쪽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09 이 글의 내용에는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끊임없이 연구했다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은 ‘새·로·스·물·여·들·字·종·를·밍·고·노·니’, ②는 ‘제·ㅂ·들·시·러·퍼·디·믈·흙·노·미·하·니·라’, ③은 ‘수·비·겨·날·로·부·메 使 便 安·안·키·고·저’, ④는 ‘나·랏·말·쓰·미 中 國·국·에·달·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사름’에서 ‘ㅅ’은 상성이라 두 점을 찍은 것이다. 입성에서 두 점을 찍는 경우는 ㅆ 받침 한자어이므로 ‘사름’과는 관련이 없다.



3대 대표기출 우수문항

본문 058~059쪽

01 ① 02 ③ 03 ③ 04 ③ 05 ③

01 현대 국어에서는 체언과 목적격 조사가 결합할 때 체언 끝소리의 받침 유무에 따라 ‘을/를’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15세기 국어에서는 체언의 끝소리가 양성 모음인지 음성 모음인지도 고려하였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하여 각 단어에 어울리는 목적격 조사를 찾아야 한다. ‘사름’의 ‘름’은 받침이 있고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을’이 와야 하며, ‘천하’의 ‘하’는 받침이 없고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를’이 와야 한다. 또한 ‘누’는 받침이 없고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를’이 와야 하며, ‘뽕’은 받침이 있고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을’이 와야 한다.

02 ㉠의 내용에 따르면, 15세기에는 중성에서 ‘ㄷ’과 ‘ㅅ’은 달리 발음되었다고 했는데, 이는 현대 국어에서 음절의 끝소리에서는 ‘ㄷ’과 ‘ㅅ’이 ‘ㄷ’으로 발음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어엿·비’에서 둘째 음성의 중성은 ‘ㄷ’이 아니라 ‘ㅅ’으로 발음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에서 15세기에는 ‘ㅌ’과 ‘ㅈ’이 존재하였다고 했고, ‘수·비’를 통해 ‘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ㅈ’은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② ㉠을 통해 15세기에는 어두 자음군이 모두 발음되었다고 했으므로 ‘ㅂ·들’에서 ‘ㅂ’은 두 개의 자음인 ‘ㅂ’과 ‘ㄷ’이

모두 발음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④㉔에서 15세기에는 방점을 통해 성조를 구분했다고 했고, ‘히·씨’를 통해 서로 다른 성조를 구분하기 위해 방점을 찍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⑤㉔은 받침 있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붙을 때 이어 적기를 한다는 것인데, ‘뿌·매’는 이어 적기가 적용된 예에 해당한다. 끊어 적기가 적용되었다면 ‘뿌·에’로 표기했을 것이다.

03 이체자는 가획자에 한 번 더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가 아니다. 훈민정음에서는 이체자에 대해 획을 더한 뜻이 없다고 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어금닛소리의 기본자 ‘ㄱ’은 같은 조음 위치의 가획자 ‘ㅋ’과 형태상 유사하다. 혀소리, 입술소리, 잇소리, 목구멍소리의 기본자와 가획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훈민정음에서는 조음 위치가 같은 기본자와 가획자가 형태상 유사하게 되어 있다. ② ‘ㄱ’과 ‘ㅋ’을 비교해 보면 가획자는 기본자에 획을 더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④ 모음의 초출자는 기본자 ‘ㆍ, ㅡ, ㅣ’의 결합으로 만들어졌다. 모음의 재출자는 초출자에 기본자의 ‘ㆍ’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 역시 기본자의 결합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⑤ 훈민정음에서는 종성을 위해 별도의 문자를 만들지 않고, 초성자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자음의 수가 불필요하게 늘어나지 않게 하여 문자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04 [A]에는 ‘넌’이 / /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오는 사례가 들어가지 않는다. ‘머리+넌’은 / / 모음으로 끝난 ‘머리’라는 체언 뒤에 ‘넌’이 온 경우라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글은’에서 ‘글’은 체언이 아니며 / / 모음으로 끝나고 있지도 않다. 그리고 ‘넌’이 결합되어 있지도 않다. ② ‘나넌’에서 ‘넌’이 결합되어 있지만, ‘나’는 / /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이 아니다. ④ ‘바되넌’에 ‘넌’이 결합되어 있지만, ‘넌’이 / /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오고 있지 않다. ⑤ ‘이화넌’에 ‘넌’이 결합되어 있지만, ‘넌’이 / /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오고 있지 않다.

05 ‘학생 3’은 한글의 자음자에서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예사소리 - 거센소리’를 ‘A - A에 획 추가’로 나타낸 것을 통해 ‘나’의 내용(가획의 원리)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예사소리 - 된소리’를 ‘A - AA’로 나타낸 것을 통해 ‘다’의 내용(병서의 원리)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학생 1 - ‘ㄱ’이 어떠한 모습을 형상화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은 ‘상형의 원리’와 관련된다. 학생 2 - ‘ㆍ, ㅡ, ㅣ’의 기본자를 바탕으로 모든 모음자를 휴대 전화 자판으로 입력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은 중성자의 제자 원리와 관련된다. 학생 4 - ‘ㄹ’에 획을 더해 만든 자음자 ‘ㄴ, ㄷ’은 모두 ‘ㄹ’ 모양을 공통적으로 지니며, 이것은 ‘ㄹ, ㄴ, ㄷ’의 공통된 소리 특징을 반영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가획의 원리’와 관련된다. 학생 5 - 받침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것은 가~다에 제시된 제자 원리와는 관련이 없다.

02 국어의 변천

본문 060~061쪽

개념 단권화

1 得鳥失(득오실)	2 ④	3 ①	4 ②	5 연철
6 ○	7 ×	8 의미의 이동		

- 1 ‘得鳥失(득오실)’은 한자의 뜻을 버리고 음을 선택한 경우에 해당한다.
- 2 첫째 음절의 ‘ㆍ’은 18세기에 ‘ㅏ’로 변화였다.
- 3 ‘빙’은 15세기 중엽으로 오면서 ‘오/우’로 변하며 이중 모음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는 현대 국어의 ‘ㅕ’ 불규칙 용언과 관련이 있다.
- 4 성조의 소멸로 의미 구별이 어렵게 되자 ‘소리의 길이’라는 운소가 등장하게 되었다.
- 5 받침 ‘ㄹ’을 조사에 연달아 쓰고 있으므로 연철이 적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6 ‘닐러’에서 어두의 ‘ㅣ’에 선행하는 ‘ㄴ’이 탈락하지 않았다.
- 7 ‘도쿄’는 ‘ㄷ’이 ‘ㅈ’으로 바뀌지 않았으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이다.
- 8 ‘어엿쁘다’는 ‘가엿다’를 뜻하였는데, 현대 국어의 ‘예쁘다’는 ‘모양이 작거나 섬세하여 눈으로 보기에 좋다’란 뜻이므로 의미 이동의 예에 해당한다.



교과서 문제로 개념완성

본문 062~063쪽

01 ②	02 ⑤	03 ④	04 ④	05 ②	06 ①	07 ③
08 의손디, 띄	09 ④					

- 01 (가)~(다)는 모두 한자의 음이나 뜻을 이용하여 우리말을 표기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즉, 차차 표기를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 02 ‘去’는 ‘가다’라는 뜻을 차용하여 표기한 것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한자의 음을 빌려 표기한 것에 해당한다.
- 오답 피하기** ㉠의 ‘善(선)’, ㉡의 ‘主(주)’, ㉢의 ‘古(고)’, ㉣의 ‘房(방)’은 모두 한자의 음을 빌려 표기한 것에 해당한다.
- 03 ㉣는 주체 보조사 ‘은’을 표기하기 위해 ‘隱(숨을 은)’의 음을 빌려 쓴 음차 표기에 해당한다.
- 04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는 (가)의 ‘文문字·쥬’에서 확인할 수 있고, (나)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동국정운식 표기는 현실음이 아닌, 이상적 한자음으로 (나)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 05 (다)의 ‘니름을’은 모음 조화가 파괴된 예에 해당한다. (가)의 시기에 비해 (다)의 시기에는 이처럼 모음 조화 파괴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다.
- 오답 피하기** ① 글자 원편에 찍던 방점이 (가)와 달리 (다)의 자료에는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종성의 ‘ㅇ’과 ‘ㅇ’이 다름을 알 수 있다. ④ (가)에서는 이어 적기를 적용했지만, (다)에서는 끊어 적기를 적용했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의 ‘뿌매’, (다)의 ‘니름’, ‘떡기’에서 명사형 어미를 확인할 수 있다.

06 ‘어린’은 과거 쓰이던 의미와 현재의 의미가 큰 관련이 없이 바뀐 예로 ①의 ‘어여쁘다’ 역시 이에 해당한다. ②는 현대 중국에서의 외래어 표기 문제이고, ③은 한자어가 고유어를 대체한 현상이며, ④와 ⑤는 각각 의미의 확대와 의미의 축소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②는 현대 중국에서의 외래어 표기 문제이고, ③은 한자어가 고유어를 대체한 현상이며, ④와 ⑤는 각각 의미의 확대와 의미의 축소에 해당한다.

07 ‘-ㄴ다’와 ‘-ㅁ다’는 2인칭 주어와 호응하는 의문형 어미로, 현대 국어에는 남아 있지 않은 특수한 형태의 어미이다.

08 ‘사름의손다’에서 ‘의손다’, ‘스승님째’에서 ‘째’는 여격 조사로 현대 국어의 ‘에게(서)’에 해당한다.

09 ‘므·른’에는 원순 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물은’에서는 원순 모음화가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순 모음화가 파괴되어 감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3大 대표기출 우수문항

본문 064~065쪽

01 ②
02 ②
03 ⑤
04 ③
05 ②
06 ⑤

01 ㄱ의 ‘ㅁ술’과 ‘ㄱ술’의 첫째 음절 ‘ㅁ’과 ‘ㄱ’은 현대 국어에서 각각 ‘ㅁ’과 ‘ㄱ’로 바뀌고, 둘째 음절에서 공통적으로 쓰인 ‘술’은 현대 국어에서 ‘을’로 바뀐다. 이를 통해 ‘ㅁ술’과 ‘ㄱ술’ 모두 첫째 음절의 ‘.’는 ‘ㅁ’로 바뀌고, 둘째 음절의 ‘.’는 ‘ㅁ’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ㄱ에 쓰인 ‘.’가 현대 국어에서 첫째 음절과 둘째 음절에서 변화된 음운의 모습이 같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ㄱ을 보면 ‘ㅁ술’과 ‘ㄱ술’의 ‘ㅁ’은 변천 과정 중에 모두 소멸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ㄴ에서 ‘답다’의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와 결합하여 ‘더버’로 바뀐 것을 볼 때, ‘답다’의 ‘ㅁ’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여 ‘ㅁ’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고ㅁ’은 ‘ㅁ’ 뒤에 양성 모음 ‘ㅏ’가 결합하여 현대 국어에서 ‘고ㅁ’로 변화했고, ‘구ㅁ’은 ‘ㅁ’ 뒤에 음성 모음 ‘ㅓ’가 결합하여 현대 국어에서 ‘구ㅁ’로 변화했다. 그러므로 ‘ㅁ’에 결합되는 어미의 모음에 따라 현대 국어에서의 표기가 달라졌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ㅁ술’과 ‘ㄱ술’은 현대 국어에서 각각 ‘ㅁ술’과 ‘ㅁ술’로 변화했고, ‘고ㅁ’과 ‘구ㅁ’은 현대 국어에서 각각 ‘고ㅁ’과 ‘구ㅁ’로 변화한 것을 볼 때, ‘ㅁ’과 ‘ㅁ’은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ㅁ’과 ‘ㅁ’이 현대 국어에 표기되지 않게 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02 단어의 둘째 음절에 놓인 모음 ‘ㅓ’가 ‘ㅓ’로 변화한 사례에는 ‘사슴’이 ‘사슴’으로 바뀐 것을 들 수 있고, 첫째 음절에 놓인 모음 ‘ㅓ’가

‘ㅓ’로 변화한 사례에는 ‘ㅓ장’이 ‘ㅓ장’으로 바뀐 것을 들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ㅁ술’이 ‘ㅁ술’로 변화한 것은 ㉠의 사례에 해당한다. 하지만 ‘ㅁ’이 ‘ㅁ’으로 변화한 것은 ㉡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하나’가 ‘하나’로 변화한 것은 ㉢의 사례에 해당하고, ‘오늘’이 ‘오늘’로 변화한 것은 ㉣의 사례에 해당한다. ④ ‘사름’이 ‘사람’으로 변화한 것은 ㉤과 ㉥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ㄴ리’가 ‘ㄴ리’로 변화한 것은 ㉦의 사례에 해당한다. ⑤ ‘아들’이 ‘아들’로 변화한 것은 ㉧의 사례에 해당하지만, ‘다섯’이 ‘다섯’으로 변화한 것은 ㉨과 ㉩에 해당하지 않는다.

03 ‘바르매(바름+애)’에 사용된 조사 ‘애’는 ‘바름’이 원인의 부사어임을 나타내고 있지만, ‘바르래(바름+애)’에 사용된 조사 ‘애’는 ‘바름’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애’는 모두 현대 국어의 조사 ‘에’에 해당하지만 각각의 의미는 다름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의 조사 ‘이’는 현대 국어의 조사 ‘와/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성’이 비교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의 ‘불휘’는 ‘불휘+ㅇ’로 분석되고, ‘불휘’는 현대 국어 ‘뿌리가’에 해당하므로 주격 조사의 형태가 드러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의 ‘남근’의 형태소 분석에 따르면 조사와 결합할 때, ‘ㅓ’이 덧붙는 것을 알 수 있다. ㉣의 조사 ‘은’과 ㉤의 ‘르른(름+은)’의 조사 ‘은’은 모두 현대 국어의 조사 ‘은’에 해당하며, 앞말의 모음이 양성 모음인지 음성 모음인지에 따라 달리 표기되는 이형태이다.

04 현대 국어의 ‘걸음음’을 중세 국어에서는 ‘거르플’로 표기하였는데, 이는 소리대로 적은 것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현대 국어는 ‘걸음음’로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지만, 중세 국어는 ‘거르플’로 소리대로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부처의’와 ‘부텃’을 비교해 보면, 관형격 조사가 현대 국어에서는 ‘의’, 중세 국어에서는 ‘ㅓ’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②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객체인 ‘부텃 말’을 높이기 위해 ‘-줍-’이라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④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현대 국어에서는 ‘-시-’, 중세 국어에서는 ‘-ㅓㅓ-’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⑤ ‘바가’와 ‘배’를 비교해 보면, 주격 조사가 현대 국어에서는 ‘가’, 중세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 ‘ㅓ’가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ㅁ’에 결합되어 ‘배’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05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 볼 때,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는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과, 또는 음성 모음이 양성 모음과 어울리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하늘음’의 경우, 모음 조화가 지켜졌다면 ‘하늘’이 양성 모음으로 되어 있으므로 다음에 오는 목적격 조사는 ‘을’이 아닌 ‘을’이 되어야 한다.

06 ‘저ㅁ’는 현대 국어의 ‘제ㅁ’에 해당하는 단어로, 현대 국어로 오면 서 형태가 변하였지만 의미는 달라진 것은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① 모든 단어를 붙여 써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②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반치음(ㅓ)과 아래아(ㅚ)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단어를 끊어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고 있음(연철)을 알 수 있다. ④ 글자의 왼편에 점을 하나 또는 두 개를 찍어 성조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국어와 규범

01 한글 맞춤법 (1)

본문 068~069쪽

개념 단권화

1 ⑤ 2 ② 3 ⑤ 4 ③ 5 ⑤

1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것은 의미를 파악하기 쉽도록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히어 적는 것을 말한다.

2 받침 ‘ㅌ’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가 온 경우이므로, 한글 맞춤법 제6항에 의거하여 ‘ㅌ’이 ‘ㄷ’으로 소리 나더라도 ‘ㅌ’으로 적어야 한다.

3 ‘덜저고리’의 ‘덜’은 ‘ㄷ’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한글 맞춤법 제7항에 의해 ‘덜’으로 써야 한다.

4 두음 법칙에 따라 ‘연세, 용궁, 누각’으로 쓰는 것이 옳다. ①의 ‘탁원’, ②의 ‘류행’, ④의 ‘릉묘’, ⑤의 ‘뉴대’는 두음 법칙에 따라 적지 않는다.

5 드러냄표는 문장 내용 중에서 주의가 미쳐야 할 곳이나 중요한 부분을 특별히 드러내 보일 때 쓰는 것으로 문장을 마칠 때 사용하지 않는다.

교과서 문제로 개념완성

본문 070쪽

01 ④ 02 ⑤ 03 ④

01 ‘깍뚜기’가 아니라 ‘깍두기’로 적어야 한다. 즉, ‘깍두기’에서 ‘뚜’는 ‘ㄱ’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로,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깍두기’로 표기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산뜻’, ② ‘몽땅’, ⑤ ‘옴쩍’은 ‘ㄴ, ㄷ,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③ ‘부썽’은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로, 모두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에 해당한다.

02 제10항에서는 한자음 ‘너,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오는 경우에만 언급하고 있다. ‘역사(歷史)’를 ‘력사’로 적지 않는 것은 제10항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오답 피하기 ① ‘어깨’는 모음 뒤에서, ‘잔뜩, 살짝, 담뱃, 몽땅’은 ‘ㄴ, ㄷ, ㅁ, ㅇ’ 받침 뒤에서 다음 음절이 된소리로 나는 대로 적는 것이다. ② ‘납작’은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므로 된소리로 발음되더라도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③ ‘짹짹하다’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된소리로 적는다. ④ ‘연도(年度)’를 ‘년도’로 적지 않는 것은 제10항에 의해 한자음 ‘너’가 단어 첫머리에 왔기에 두음 법칙에 따라 ‘여’로 적는 것이다.

03 ㉔의 경우는 철수가 영화에게 햄버거와 피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묻는 것이므로, ‘[물임]’의 규정 중에서 선택적인 물음이 겹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물음표는 맨 끝의 물음에만 쓴다.

오답 피하기 ① 시험을 잘 봤는지를 직접 묻고 있다. ② 생색내는 것에 대한 비난의 의도를 수사 의문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③ ‘홀륭한’은 상대방에게 빈정거리는 태도로 말한 것이다. ⑤ 혼잣말로 의문의 의도가 약한 의문문은 물음표 대신 온점을 사용할 수 있다.

3대 대표기출 우수문항

본문 071쪽

01 ② 02 ③ 03 ③

01 ‘높이다’를 ‘높히다’로 잘못 적는 것은 ‘높다’에 결합하는 사동 접미사 ‘-이-’가 아닌 ‘-히-’로 잘못 파악한 경우로, 연음 현상에 따른 잘못된 표기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연음 현상은 ‘앞 음절의 끝 자음을 모음으로 시작되는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어 소리 내는’ 것을 말한다. ‘드러서다’는 이러한 연음 현상에 따른 발음이 표기로 잘못 이어진 사례이다. ③ ‘그러치’는 ‘그렇지’의 거센소리되기 때문 발음 [그러치]가 표기로 잘못 이어진 사례이다. ④ ‘얼혀’는 거센소리되기 때문 [얼켜]로 발음되는데, 이를 표기에 반영하여 ‘얼켜’로 잘못 적는 것은 ㉔의 사례에 해당한다. ⑤ ㉔은 ‘해돋이’의 구개음화에 따른 발음 [해도제]가 표기로 잘못 이어진 사례인데, ‘금불이’ 역시 구개음화에 따라 [금부치]로 발음되기 때문에 이를 ‘금부치’로 잘못 적는 것은 같은 유형의 사례로 볼 수 있다.

02 ㄱ의 ‘거리’와 ㄴ의 ‘너머’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이고, ㄱ의 ‘좁히다’와 ㄴ의 ‘넘어’, ㄷ의 ‘읽-’은 어법에 맞도록 쓴 예이다. 어법에 맞도록 쓰는 것은 곧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쓰는 것으로, 뜻을 파악하는 것이 쉽고 독서의 능률을 높일 수 있다. ‘너머’는 어원상으로는 ‘넘다’에서 나온 명사이지만 현재는 어원에서 떨어져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3 <보기 1>의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 겹쳐 나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는 설명에 따라 때 ‘깍두기’는 ‘ㄱ’ 받침 뒤에서 된소리인 ‘ㄷ’으로 발음되지만,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깍뚜기’가 아닌 ‘깍두기’로 적어야 한다.

02 한글 맞춤법 (2)

본문 072~073쪽

개념 단권화

1 ⑤ 2 ① 3 ④ 4 ② 5 여기 있는 소 한 마리보다 좀 더 큰 것을 주시오. (여기 있는 소 한 마리보다 좀더 큰것을 주시오.) 6 ⑤

- 1 '애꾸눈이'는 명사 '애꾸눈' 뒤에 '이'가 붙어서 만들어진 명사이다.
- 2 '어렵풋이'는 '하다'가 붙는 '어렵풋-'이라는 어근에 '이'가 붙은 경우에 해당한다.
- 3 '좁쌀'은 'ㅂ' 소리가 닳나는 것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소리대로 '좁쌀'이라 적는 것이다.
- 4 '뜨이어'의 준말은 '떠어'이다. '떠어'는 기본형이 '떠다'로 다른 단어에 해당한다.
- 5 '소한마리'는 제43항, '보다'는 제41항, '좀더 큰것'은 제46항에 의해 붙이거나 띄어야 한다.
- 6 '지병으로 돌아가시다'에서 '돌아가시다'는 하나의 동사이기 때문에 띄어 쓸 경우 의미가 달라지므로 띄어 쓸 수 없다.

교과서 문제로 개념완성

본문 074쪽

01 ⑤
02 ⑤
03 ④
04 ②

- 01** '갈작-'에 '-거리-'가 결합한 말은 제21항 2항에 의해 '갈작거리다'로 적어야 한다.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이며, 접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 오답 피하기** ① '값'에 '-지-'가 결합한 말은 제21항 1항에 의해 '값지다'로 적어야 한다. ② '넓-'에 '-적하-'가 결합한 말은 제21항 다만 (1)에 의해 '넓적하다'로 적어야 한다. ③ '깊숙-'에 '-하-'가 결합한 말은 제21항 2항에 의해 '깊숙하다'로 적어야 한다. ④ '높-'에 '-다랗-'이 결합한 말은 제21항 2항에 의해 '높다랗다'로 적어야 한다.
- 02** '뿔마루'는 뒷말의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닳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하여 사이시옷을 앞말에 받치어 적는 것이다.
- 오답 피하기** ①의 예에는 '갯밥', '나뭇가지', ②의 예에는 '아랫나', '뿔뿔', ③의 예에는 '갯잎', '나뭇잎', ④의 예에는 '갯잔', '갯강' 등을 들 수 있다.
- 03**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을 뜻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제42항의 규정대로 띄어 쓰는 것이 맞다.
- 오답 피하기** ① 제45항, ② 제43항, ③ 제41항, ⑤ 제43항 다만에 의해 옳음을 알 수 있다.
- 04** '쏟알같이'의 '같이'는 체언 뒤에 붙여 썼다. 그런데 ②의 '부모님과 같이'에 쓰인 '같이'는 체언이 아니라 '과'라는 조사 뒤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조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원리를 적용한 것은 올바른 추리라고 할 수 없다.
- 오답 피하기** ① 직함을 나타내는 말을 띄어 썼음을 알 수 있다. ③ '기둥이'를 붙인 것처럼 '돌뒹이'도 붙이는 것이 적절하다. ④ '만큼'은 조사로 붙여 써야 한다. ⑤ 관형어는 띄어 써야 한다.

3대 대표기출 우수문항

본문 075쪽

01 ⑤
02 ⑤
03 ③
04 ②

- 01** ㉠과 ㉡에 사용된 '이다'는 서술격 조사이므로 제41항에 따라 '뿐이다'와 같이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 오답 피하기** ①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므로 '큰'과 '형'은 띄어 써야 한다. ② '자루'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앞 단어와 띄어 써야 한다. ③ ㉠의 '뿐'은 의존 명사, ㉡의 '뿐'은 조사로, ㉠의 '뿐'은 ㉡의 '뿐'과 달리 띄어 써야 한다. ④ '이해해'와 '줄'은 본용언과 보조 용언으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 02** '마개'는 어간 '막-'에 접미사 '-애'가 붙어 만들어진 파생어로, 원래 어간의 뜻과 떨어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 다른 품사로 바뀐 것으로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것이다.
- 오답 피하기** ①, ④ '떡이', '같이'는 널리 쓰이는 접미사가 어간에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다. ② 장신구로서의 '목걸이'는 널리 쓰이는 접미사 '-이'가 결합되었고, 어간의 뜻과 떨어지지 않았기에 원형을 밝혀 적었다. ③ '마중'은 널리 쓰이지 않는 접미사 '-웅'이 어간에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것이다.
- 03** '날이 흐린 걸 보니 곧 비가 오겠네'에서 '흐린 걸'은 '흐린 것'의 구어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때 '것'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반드시 띄어 써야 한다.
- 오답 피하기** ① '좋지 않은 걸'은 '좋지 않은 것'의 구어적 표현이다. ② '바라는 걸'은 '바라는 것'의 구어적 표현이다. ④ '홀랑하던 걸'은 가벼운 반박을 나타내고 있다. ⑤ '뽕엿는 걸'은 감탄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 04** <보기>의 내용에 따르면, 파생어와 합성어의 경우,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와 밝혀 적지 않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파생어의 경우, 접미사 중 '-이', '-음-ㄹ'이 붙은 것과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붙은 것은 어근을 밝혀 적는 경우에 해당하며, 접미사가 붙더라도 원래 어근이나 어간의 뜻에서 멀어지거나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은 것은 어근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합성어의 경우, 어원이 분명한 말은 어근을 밝혀 적고, 어원이 불분명한 말은 어근을 밝혀 적지 않는다. '무덤'과 '지붕'은 각각 어근인 '묻-'과 '집-'에 접미사 '-엄', '-음'이 붙은 파생어로서,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은 것이므로 어근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그러나 '길'은 '길-'에 접미사 '-이'가 붙어 이루어진 파생어로서, 어근을 밝혀 적은 예에 해당한다. 한편, '뒤뿔'과 '썰알'은 합성어로서, 각각 '뒤+뿔', '썰+알'이라는 두 단어의 어원이 분명하므로 각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은 예에 해당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킨 것은 ②이다.

03 표준어 규정

본문 076~077쪽

개념 단권화

- 1 ⑤ 2 ⑤ 3 (1), (2), (4), (5) 4 제15항 5 ①
6 ① 7 제26항

- 표준어 규정 총칙 제1항에는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제시되어 있다.
- '윗층'은 '윗-' 뒤에 거센소리가 오는 경우이므로 '위-'로 쓰는 것이 옳다. 즉, '위층'으로 써야 한다.
- '꽃내기'는 '꽃내기', '허드렛일'은 '허드렛일'이 표준어이다.
- 준말이 쓰이고 있더라도, 본말이 널리 쓰이고 있으면 본말을 표준어로 삼는다.
- '오누이'와 '오누'는 표준어 규정 제16항에 의거한 복수 표준어이다.
- '명개'가 표준어인 '우렁쟁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된 것으로 '명개'를 표준어로 삼는다. '우렁쟁이'는 그대로 표준어로 남겨 둔다.
-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교과서 문제로 개념완성

본문 078쪽

- 01 ③ 02 ③ 03 ③ 04 ①

- '귀개/귀이개'는 준말이 쓰이고 있더라도, 본말이 널리 쓰이고 있으면 본말을 표준어로 삼는 경우에 해당한다. 제14항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피하기 ① '꾸', ② '뱀', ④ '생쥐', ⑤ '온갖'은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 ㉠에서 접두사 다음에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고 하였으므로 '돼지의 암컷'을 이르는 말은 '암돼지'로 표기해야 한다.
오답 피하기 ①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하였기 때문에 '숫놈'이 아니라 '수놈'으로 표기한다. ② '소의 수컷'을 이르는 말은 제12항에 따라 '수소'로 표기해야 한다. ④ '숫병아리'를 '수평아리'로 표기하는 것은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⑤ ㉠은 발음상 사이시옷과 비슷한 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숫-'의 형태를 취한 것이다. '숫염소'도 '숫-'을 표기에 그대로 쓰는 예에 해당하므로 다만 2의 예에 추가할 수 있다.
- '아지랑이'는 'ㄹ' 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이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예에 해당한다. 즉, '아지랑이'로 써야 옳은 표기가 된다. 반면, '냄비', '땃쟁이', '서울내기', '동맹이치다'는 모두 'ㄹ' 역행 동화 현상이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 예에 해당한다.

04 '돋'은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다만 2에 의거하여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아 '웃돋'으로 표기해야 한다. '윗돋'으로 적으면 틀린 표기가 된다.

오답 피하기 ② '팔'은 거센소리에 해당하므로 다만 1의 적용을 받는다. ③ '어른'은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이므로 다만 2의 적용을 받는다. ⑤ 제12항 전체는 다른 단어와 '위-/윗-/웃-'이 결합될 때의 표기를 다루고 있는 규정이다.

3대 대표기출 우수문항

본문 079쪽

- 01 ④ 02 ⑤ 03 ④

- '깡충깡충'은 음성 모음 형태로 발음하는 습관을 반영한 것이 맞지만, '삼촌'은 음성 모음 형태로 발음하는 습관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양성 모음 형태로 발음하는 습관을 반영한 것이다. 즉, '깡충깡충'은 음성 모음 'ㄱ'를 표준어로 삼은 경우에 해당하지만, '삼촌'은 어원 의식을 존중해서 양성 모음 '고'를 표준어로 삼은 경우에 해당한다.
- '꽃머슴'은 '선머슴'의 잘못으로 표준어가 아니다. 우리말에서는 단어의 뜻이 거의 일치하고 쓰이는 환경도 비슷하여 그 세력의 우열을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복수 표준어'라고 한다. ① '천둥', '우레', ② '나귀', '당나귀', ③ '옥수수', '강냉이', ④ '자물쇠', '자물통'은 모두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는 단어들이다.
오답 피하기 ① '천둥', '우레', ② '나귀', '당나귀', ③ '옥수수', '강냉이', ④ '자물쇠', '자물통'은 모두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는 단어들이다.
- 원래는 '자장면'이 표준어였지만, 현실에서 '짜장면'을 많이 사용하여 '짜장면'도 표준어로 인정되었다. 즉, 표준어가 정해져 있더라도 비표준어가 당시에 두루 쓰이면 복수 표준어가 될 수 있다.

04 표준 발음법

본문 080~081쪽

개념 단권화

- 1 ○ 2 × 3 ⑤ 4 줄림끼, 할른지 5 버홀치, 고지든 따 6 ① 7 ⑤

-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표준 발음법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의 발음을 표준어의 실제 발음으로 여기고, 이를 따르도록 원칙을 정하였다.
- '눈멀다'는 눈멀대로 발음하는 것이 옳다.
-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리]로 발음한다.

5 받침 ‘ㄷ, ㅌ(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즈, ㅌ]으로 바뀌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6 ‘절도’는 제26항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ㄷ’이 연결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절또’로 발음해야 한다.

7 ‘서울역’은 [서울력]으로 발음되며, ‘ㄹ’을 첨가하여 발음해야 하는 단어에 해당한다.



교과서 문제로 개념완성

본문 082쪽

01 ⑤ 02 ② 03 ② 04 ④

01 ‘값을’은 겹받침 ‘ㅃ’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을’과 결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ㅅ’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하고, ‘ㅅ’은 된 소리로 발음해야 하므로 [갑쓸이] 표준 발음이다.

오답 피하기 제14항은 연음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①~④는 모두 뒤엣 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 것에 해당한다.

02 ‘떠어쓰기’는 ㉠을 적용하여 [떠어쓰기]로 발음할 수 있다. ‘우리’의 ‘ㄹ’은 ㉡을 적용하여 [우리], [우리]로 발음할 수 있다. ‘협’의 ‘ㄹ’은 ㉢을 적용하여 [허비, 허비]로 발음할 수 있다. 참고로 ‘시계’는 [시계], [시계]로 발음할 수 있다.

03 ‘아랫니’의 경우 사이시옷 뒤에 ‘ㄴ, ㄷ’이 결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나]으로 발음해야 한다. 즉, [아래나]가 표준 발음이 된다.

오답 피하기 ① ‘냇가’는 [내:까/냇:까], ③ ‘빨랫줄’은 [빨래똥/빨래똥]로 발음할 수 있다. ④ ‘뱃머리’는 [뱃머리]로만, ⑤ ‘베갯잇’은 [베갯넛]으로만 발음해야 한다

04 제20항에서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리]로 발음한다고 하였으나, ‘외견란의:견넛’, ‘입원료이뵤노’의 경우 ‘ㄹ’을 [나]으로 발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ㄴ’을 [리]로 발음하는 예에는 ‘난리날:로, 신래실래, 천리철리, 갈날갈랄, 물난레물랄리’ 등이 있다.



3대 대표기출 우수문항

본문 083쪽

01 ① 02 ⑤ 03 ⑤

01 ‘꽃이랑’은 ‘꽃’과 ‘이랑’이 합쳐진 합성어로서 [꼴이랑]→[꼬디랑]으로 발음해야 하겠지만 뒤 단어의 첫 음절이 ‘ㅣ’이므로 ‘표준 발음법 조항’ 제29항에 따라 ‘ㄴ’소리를 첨가하여 [꼴니랑]으로 발음해야 한다. ‘꽃오목’은 ‘꽃’과 ‘오목’이 합쳐진 합성어로서 ‘표준 발음법 조항’ 제15항에 따라 뒤 단어의 첫 음절이 ‘ㅇ’이므로 [꼴오목]→[꼬도목]으로 발음해야 한다.

02 어간 ‘래’의 발음은 ‘ㄷ’으로 시작하는 어미 ‘-도록’이 올 때와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 ‘-게’가 올 때 [리]로 같다. 또 어간 ‘넙-’의 ‘래’ 발음은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 ‘-지’가 올 때와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 ‘-고’가 올 때 [리]로 같다. 한편 어간 ‘넙-’의 ‘래’ 발음은 ‘ㄷ’으로 시작하는 어미 ‘-고’가 올 때와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 ‘-게’가 올 때 [비]로 서로 같다.

03 <보기>에 제시된 규정에 따르면 ‘층의의’를 [층의의], [층이의], [층의에], [층이에]로 모두 발음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층의의’를 [층이에]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ㅈ’과 ‘ㅊ’은 서로 다른 단모음으로서 이를 동일하게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ㄹ’은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되며 이때 그 발음은 [레]와 같아진다고 하였으므로, ‘금괴’를 [금게]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③ ‘예, 레’ 이외의 ‘ㄹ’은 [레]로도 발음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지혜’를 [지헤]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④ ‘비취다’의 ‘ㄹ’을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ㅣ]로 발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비취다’를 [비치다]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으로 보기 어렵다.

05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본문 084~085쪽

개념 단권화

1 ④ 2 ③ 3 ④ 4 uyu 5 yeui 6 ② 7 ②

1 제4항에 의거하여 ‘bus’의 파열음 [b]는 발음이 된소리 [ㅂ]로 소리나지만, ‘ㅂㅅ’로 쓰지 않고 ‘ㅂ스’로 쓴다.

2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함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1항에 제시되어 있다.

3 음운 환경에 따라 ‘ㄱ’은 ‘g,k’, ‘ㄷ’은 ‘d,t’, ‘ㅂ’은 ‘b,p’로, ‘ㄹ’은 ‘l,r’로 표기한다. ‘ㅅ’은 ‘s’로만 표기한다.

4 ‘우’는 ‘u’로, ‘유’는 ‘yu’로 쓸 수 있다. 그러므로 ‘우유’의 로마자 표기는 ‘uyu’가 된다.

5 ‘예’는 ‘ye’로, ‘의’는 ‘ui’로 쓸 수 있다. 그러므로 ‘예의’의 로마자 표기는 ‘yeui’가 된다.

6 ‘중앙(jung-ang)’과 같이 로마자 표기 시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사용한다.

7 ‘백마’는 제1항에 따라 음운 변화가 일어난 대로 [뵤마]에 맞게 표기해야 하므로 ‘baengma’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

문법 실력평가 모의고사

문법 실력평가 모의고사

본문 088~089쪽

1회

01 ② 02 ② 03 ① 04 ⑤ 05 ③ 06 ④

01 ‘ㅎ’을 제외한 다른 자음들도 소리 나는 위치는 각각 한 곳임을 알 수 있다. ‘ㅎ’만 한 곳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① 비음은 입술, 잇몸, 여린입천장, 유음은 잇몸에서만만 들어진다. 셴입천장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③ 마찰음은 파열음과 파찰음과 다르게 예사소리와 된소리만 가지고 있고, 거센소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④ ‘ㄹ’과 ‘ㄴ’은 소리 나는 위치도 다르고, 소리 내는 방식도 다름을 알 수 있다. ⑤ ‘ㄷ’과 ‘ㅌ’은 모두 잇몸에서 나는 소리이지만, 소리 내는 방식은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02 ‘이똥든’이 아니라 ‘이무든’과 같이 소리대로 적는 것은 ㄴ의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ㄹ에 제시된 ‘결단코’, ‘기필코’ 등의 부사에 해당하 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청하건대 → 청컨대’, ‘무심하지 → 무심치’는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탈락하고, ‘ㅎ’과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축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생각하건대 → 생각컨대’는 ‘하’가 탈락한 것에 해당한다. ④ ‘접섭하지 → 접섭지’는 ‘하’가 탈락한 것에 해당한다. ⑤ ‘한 사코’, ‘하마터면’은 부사로, 소리나는 대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03 ㄴ에서 ‘공부하다’란 동사와 같이 ‘체언+하다’의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공부하다, 추천하다 등), 이를 부정할 때에는 ‘안 공부하다’보다는 ‘공부안 하다’와 같은 형태가 자연스럽다.

오답 피하기 ② ‘수지는 학교에 안 갔다.’는 ‘수지는 학교에 갔다.’에 ‘안’을 넣어 부정문을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수지는 학교에 못 갔다.’는 능력 부정이지만, ‘수지는 학교에 안 갔다.’는 의지 부정이다. 즉, ㄴ은 외부의 요인에 의해 행위가 일어나지 못함을 드러내는 부정문임을 알 수 있다. ④ ㄴ에 ‘아니하다’라는 부정 표현이 쓰였지만, 부정의 의미라기보다 확인의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수지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수지는 학교에 갔다.’에서 ‘갔다’의 어간에 어미 ‘-지’를 붙이고 뒤에 ‘아니하다’를 써서 만든 긴 부정문임을 알 수 있다.

04 <보기>에서 선생님의 말인 ㉠과 ㉡은 모두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지만 문장 형식에 나타나는 의미는 다름을 알 수 있다. 즉, ㉠은 학생에게 열심히 하는 자세를 보이려는 요청의 의미가 드러난 말이지만, ㉡은 A42 장 정도로 줄이면 되겠냐는 의문의 의미가 드러난 말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의 ‘숙제를 줄여 달라고 하기 전에’를 통해 볼 때 선생님은 ㉠을 요청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의 ‘알았어요, 선생님’을 통해 볼 때, 학생은 ㉡에 담긴 문장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했다고 볼 수 있다. ③ ㉢로 볼 때, 선생님은 ㉢에서 요청하는 학생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④ ㉣은 문장의 형식은 의문문이지만, 실제 의미는 요청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은 문장의 형식과 실제 의미가 일치하는 문장임을 알 수 있다.

05 ‘참’은 부사이면서 문장에서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다. ‘참’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며, 격조사 ‘이/가’, ‘을/를’이 뒤에 붙을 수 없는 단어이다. 또한 동사, 형용사와 같은 용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품사 중에서 ‘명사’를 꾸밀 수 없다. 이를 모두 충족하는 것은 ㉡이다.

오답 피하기 일반적으로 ㉠에는 ‘명사’, ㉢에는 ‘관형사’, ㉣에는 ‘동사’, ㉤에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다.

06 (가)의 ‘슬후니’가 (나)의 ‘슬호니’로 바뀐 것으로 보아 모음 조화에 동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고’, ‘구’ 모두 원순 모음이므로 원순 모음화의 동요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피하기 ① ‘ㅌ수·물’에서 ‘ㅌ’이 소실되어 ‘ㅌ수물’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늑물물’에서 ‘늑·므를’과 달리 ‘ㄹㄹ’을 거듭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놀·래·다’의 ‘.’가 소멸하여 ‘놀래노다’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나·라히’에 쓰였던 방점이 ‘나라히’와 같이 없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법 실력평가 모의고사

본문 090~091쪽

2회

01 ③ 02 ② 03 ① 04 ② 05 ⑤ 06 ④

01 ㄷ를 통해 실질 형태소끼리 결합할 때 구개음화가 일어나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굳이’와 ‘같이’에 붙은 ‘-이’는 접미사로 형식 형태소에 해당한다. 즉,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의 결합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난 예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바디[節]’, ‘타’는 ‘ㄷ’이 ‘ㄴ’모음 앞에 쓰였지만 한 형태소이기에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② ‘미단 이’, ‘날날이’는 ‘ㄷ, ㅌ’이 두 번째 음절 이후에 사용되었어도 ‘ㄷ’이나 ‘ㄷ’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④ ‘물히다’, ‘간히다’는 ‘ㄷ’과 ‘ㅎ’이 축약을 일으킨 다음에도 구개음화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⑤ ‘붙여’, ‘단혀’에는 모음 ‘ㅜ’가 이어졌음에도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02 ‘그는 대학에 수석으로 합격했다더라.’에서 ‘-더-’는 회상을 나타내는 과거 시제이다. 그러므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먼저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웃는구나’에서 ‘-는’은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현재 일어남을 나타내는 어미로, 사건시와 발화시가 같음을 알 수 있다. ③, ④ ‘갔다’나 ‘보았다’에서 ‘-았-’은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어미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먼저임을 알 수 있다. ⑤ ‘하시겠습니까’에서 ‘-겠-’은 미래의 일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임을 알 수 있다.

03 ‘벗겨진’은 ‘벗-+-기-+-어지-+-ㄴ’으로 분석된다. 여기

에서 ‘-기-’는 사동 접미사이고, ‘-어지-’는 피동 접미사이다. 불필요하게 이중 피동 표현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사동 접미사가 붙어 사동사 ‘벗기다’가 만들어진 후에 ‘-어지-’가 붙어 피동사가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ㄱ은 문법성을 갖춘 문장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 ㄴ은 뒤 문장에서 앞 문장의 ‘철수’를 가리키는 ‘그’를 사용하여 두 문장이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담화 표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적절성을 갖춘 문장이라 할 수 있다. ③ ㄷ은 ‘~에 대해서는’이 영어의 ‘about’을 그대로 번역하여 쓴 표현이다. 즉 외국어 번역체 표현이 사용되어 적절성을 갖추지 못한 문장이라 할 수 있다. ④ ‘맞힌’의 어미 ‘-ㄴ’은 행위가 과거에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과거형 어미이므로 문법성이 갖추어진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⑤ ㄹ은 서술어 ‘진단하다’가 목적어 ‘문제점’과는 호응을 이루고 있지만, ‘대안’과는 호응을 이루고 있지 못하므로 문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진단한다.’로 써야 옳다.

04 ‘나는 이 일만 끝내고 먹으래.’에는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만 드러나 있다. ‘이 일만 끝내고 먹겠다.’라는 것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화자의 경험, 추측, 전해 들은 것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비가 많이 온대.’에서 ‘-대’에는 ‘전해 들음’이라는 정보의 출처가 드러나 있다. ③ ‘지연이가 아직도 안 왔네.’에서 ‘-네’에는 ‘직접 경험’이라는 정보의 출처가 드러나 있다. ④ ‘참 더웠겠어.’에서 ‘-겠-’은 ‘추측’이라는 정보의 출처가 드러나 있다. ⑤ ‘도착했을걸.’에서 ‘-걸’에는 ‘추측’이라는 정보의 출처가 드러나 있다.

05 ㉠은 현대와 다르게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현대에는 두음 법칙에 의해 ‘ㄴ’이 두음에 오지 못하고 ‘ㅇ’으로 바뀌었는데, 주어진 자료에서는 ‘ㄴ’이 그대로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글자의 원편에 찍은 점은 성조를 나타내는 방점이다. ② ㉠에서는 끊어 적기(분철), ㉡에서는 이어 적기(연철) 표기가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는 ㉢과 ㉣의 훈’에서는 ‘ㅊ’로 ㉤의 ‘를’에서는 ‘ㄹ’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딕훈’이 ‘직훈’으로 쓰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구개음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06 ‘월꺄’은 [월꺄]로 발음된다. 그러나 ‘ㄱ, ㄷ, ㅂ’은 어말에서는 [k, t, p]로 써야 하므로, [ʷolɡoɾ]로 적어야 바른 표기가 된다.

오답 피하기 ① ‘영동’에서 ‘ㄷ’은 모음 앞이므로 [d]로 적어야 바른 표기이다. ② ‘구미’에서 ‘ㄱ’은 모음 앞이므로 [g]로 적어야 바른 표기이다. ③ ‘옥천’에서 ‘ㄱ’은 어말이므로 [k]로 적어야 바른 표기이다. ⑤ ‘한밭’에서 ‘ㄷ’은 어말이므로 [t]로 적어야 바른 표기이다.

문법 실력평가 모의고사

본문 092~093쪽

3회

01 ① 02 ⑤ 03 ⑤ 04 ④ 05 ② 06 ⑤

01 ‘흙냄새’는 ‘ㄹ’에서 ‘ㄴ’이 탈락하여 [흙냄새]로 바뀐 후, ‘ㄱ’이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ㅇ’으로 교체되어 [흙냄새]로 발음된다. 즉, 탈

락과 교체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이다.

오답 피하기 ‘흙냄새[흙냄새]’를 발음할 때에 음운이 ‘첨가’되거나 두 음운이 ‘축약’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02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된 ‘앞발이 짧다’라는 절 전체가 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꽃이 활짝 피었다.’는 주어, 부사어, 서술어로 구성된 홑문장이다. ② ‘그는 학생이 아니다.’는 주어, 보어, 서술어로 구성된 홑문장이다. ③ ‘얼음이 물이 되었다.’는 주어, 보어, 서술어로 구성된 홑문장이다. ④ ‘아버지의 팔이 길다.’는 ‘관형어, 주어, 서술어’로 구성된 홑문장이다.

03 ‘푸르다’는 ‘푸르-+-어 → 푸르러’로 보아 어간이 ‘르’로 끝나는 용언에 모음 어미 ‘어’가 ‘러’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불규칙 현상이다. 반면 ‘치르-+-어 → 치러’의 경우 ‘-’모음이 탈락한 것으로 이는 규칙 현상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하’로 끝나는 용언에 모음 어미 ‘아’가 ‘여’로 바뀌는 현상으로, 어미가 변하는 ‘여’ 불규칙에 해당한다. ② ‘ㅂ’이 모음 어미 앞에서 ‘오/우’로 변하는 현상으로, 어간이 변하는 ‘ㅂ’ 불규칙에 해당한다. ③ ‘우’가 모음 어미 앞에서 떨어지는 현상으로, 어간이 변하는 ‘ㄱ’ 불규칙에 해당한다. ④ ‘ㅎ’으로 끝나는 어간에 ‘어/아’가 오면, 어간의 일부인 ‘ㅎ’이 없어지고 어미도 변하는 현상으로,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하는 ‘ㅎ’ 불규칙에 해당한다.

04 ‘생각했다.’라는 말에 비추어 보아 ‘만약 내가 이런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모두들 깜짝 놀라겠지.’는 마음속으로 한 말임을 알 수 있다. 마음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에는 작은따옴표를 써야 한다.

오답 피하기 ① 남의 말을 인용한 경우에는 큰따옴표를 써야 한다. ②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두드리지게 하기 위해 드러냄표 대신에 쓰인 것이므로 작은따옴표를 써야 한다. ③ 따온 말 가운데 다시 따온 말이 들어 있을 때에 쓰인 것이므로 작은따옴표를 써야 한다. ⑤ 글 가운데서 직접 대화를 표시할 때에 쓴 것이므로 큰따옴표를 써야 한다.

05 ‘남비’와 ‘냄비’ 중 ‘ㅂ’ 역행 동화가 일어난 형태인 ‘남비’가 표준어이고(ㄱ), ‘동당이치다’와 ‘동맹이치다’ 중 ‘ㅂ’ 모음 역행 동화가 일어난 형태인 ‘동맹이치다’가 표준어이다(ㄹ).

오답 피하기 ‘미장이’와 ‘미쟁이’ 중 ‘ㅂ’ 역행 동화가 일어나지 않은 형태인 ‘미장이’가 표준어이고(ㄴ), ‘아지랑이’와 ‘아지랭이’ 중 ‘ㅂ’ 역행 동화가 일어나지 않은 형태인 ‘아지랑이’가 표준어이다(ㄷ). 그러므로 ㄴ과 ㄷ은 “‘ㅂ’ 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단어들은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는 데 적절하지 않은 사례이다.

06 ㉣의 ‘ㅅ’는 ‘물’이라는 의미를 빌린 훈차 표기이고, ㉥ ‘ㅁ’은 ‘물’이라는 소리를 빌린 음차 표기이다.

오답 피하기 ①, ② ㉣는 본래 ㉥였다고 하였으므로 동일한 지역의 우리말 소리를 다른 한자로 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의 ‘ㅅ’소리 ‘수’와 ㉥의 ‘ㅁ’의 소리 ‘물’은 다르지만 ‘ㅅ’의 뜻인 ‘물’과 ‘ㅁ’의 소리

‘물’은 같음을 알 수 있다. ④ ⑥의 ‘勿’이 ④의 ‘水’로 표기가 바뀐 것에 비추어 볼 때, ⑥의 의미는 ‘물’과 관련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문법 실력평가 모의고사

본문 094~095쪽

4회

01 ② 02 ① 03 ② 04 ⑤ 05 ③ 06 ③

1 ‘논리논리’는 초성 ‘ㄴ’ (Y)의 영향으로 종성 ‘ㄴ’ (a)이 ‘ㄹ’ (b)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부엌부엌’은 종성 ‘ㄱ’이 대표음 ‘ㄱ’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Y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넌넌넌넌’은 ‘ㄴ’이 첨가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④ ‘법학법학’은 종성 ‘ㅂ’과 ‘ㅎ’이 축약되어 ‘ㅍ’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⑤ ‘외꿔외꿔’은 자음군 ‘ㄹ’에서 ‘ㅅ’이 탈락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02 ‘백부’는 아버지의 ‘둘 이상의 형 가운데 맏이가 되는 형’을 이르는 말로, ‘+부계’, ‘+남성’, ‘+혈연’으로 의미 자질을 표시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부계’에 해당하는 것은 ‘백부, 숙모, 고모부’이고, ‘모계’에 해당하는 것은 ‘이모’와 ‘외숙모’이다. ‘남성’에 해당하는 것은 ‘백부’, ‘고모부’이고, ‘여성’에 해당하는 것은 ‘숙모’, ‘이모’, ‘외숙모’이다. ‘혈연’에 해당하는 것은 ‘백부’, ‘이모’이다. ‘비혈연’에 해당하는 것은 ‘숙모’, ‘고모부’, ‘외숙모’이다.

03 ㄴ은 ‘벡타이’를 매고 있는 행위의 ‘진행’이나 ‘완료’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중의적 문장이다. 즉, 벡타이를 매는 동작을 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벡타이를 매는 동작을 이미 끝내고 있는 상태의 지속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ㄱ은 양념을 만들 때 소금을 얼마나 넣어야 할지 알 수 없는 모호한 문장이라 할 수 있다. ‘적당히’는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 그 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양을 나타내는지 분명하지 않다. ③ ㄴ은 관형어 ‘아름다운’이 수식하는 말이 바로 뒤에 따라오는 ‘그녀’인지, 그녀의 ‘동생’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이다. ④ ㄹ은 그가 걷는다는 사실이 이상하다는 의미로도, 그의 걸음걸이가 이상하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 중의적 문장이다. ⑤ ㄹ은 그 민족이 단순히 매우 우수하고 열성적이라고 했을 뿐 어떤 면에서 그러하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04 ㄷ. 환갑, 고회 등의 생일에 당사자에게는 ‘생신 축하합니다.’, ‘더욱 건강(강녕)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것이 좋다. ㄷ. 문상을 가서는 고인에게 재배하고, 상주에게 절한 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러서거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얼마나 슬프십니까?’, ‘뉘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와 같이 인사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한 예의에 맞다. ㄴ. 송년 인사는 상대방에 대한 고마움의 뜻과 한 해 동안의 수고에 대한 칭찬을 포함할 수 있다.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송년 인사의 좋은 예이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나 ‘한 해 동안 수고했네.’라는 말로 송년 인사를 할 수 있는데, 이는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쓰는 말이고 윗사람에게 써서는 안 된다.

05 ‘가지어’는 ‘가져’로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에 해당한다. ‘제5항 다만 1’에 따라 [제]로만 발음해야 한다. [제]와 같이 이중 모음으로 발음해서는 안 된다.

오답 피하기 ① ‘시계’는 ‘예, 레’ 이외의 ‘계’에 해당하므로 ‘제5항 다만 2’에 의해 [계] 외에 [제]로도 발음할 수 있다. ② ‘닝킴’은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에 해당하므로 ‘제5항 다만 3’에 의해 [니]로 발음해야 한다. ④ ‘강의의’는 조사 ‘의’가 붙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5항 다만 4’에 의해 [니] 이외에 [제]로도 발음할 수 있다. ⑤ ‘혈의’는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에 해당하므로 ‘제5항 다만 4’에 의해 [니] 이외에 [제]로도 발음할 수 있다.

06 구개음화는 ‘ㄴ’ 모음 앞의 ‘ㄷ, ㅌ’이 ‘ㅈ, ㅊ’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가)의 ‘떠·디’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츠츠’는 ‘ㄷ’ 모음 앞의 ‘ㄷ’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따라서 구개음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① (가)의 ‘뭇’에는 종성에 ‘ㄷ’이 사용되고 있다. (나)의 ‘긋긋’은 종성에 ‘ㄷ’을 사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② (가)의 ‘나·랏 : 말 따미’에는 방점이 찍혀 있지만, (나)의 ‘홍석이’에는 방점이 없어 성조가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의 ‘스·플’은 모음이 원순 모음으로 바뀌지 않았지만, (나)의 ‘숯불뿔’은 모음이 원순 모음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의 ‘뿌·메’에는 명사형 어미 ‘-음/-음’이 사용되었지만, (나)의 ‘통낭항기’에는 명사형 어미 ‘-기’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